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6th. vol. Ballantine's Magazine

Discover the Legends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여섯 번째 대회

The Moments of Glory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빛나는 순간들을 돌아보다

아름다운 전야제 '갈라 디너'

우승자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세상에 없는 블렌딩'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히스토리

Great Brands Think Alike

발렌타인 & 뱅앤올룹슨

미리 체크해야 할 EPGA/PGA 투어 일정

Ballantine's Special Concept Space

아난티 클럽 서울 / 아일랜드 리조트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Collaborated with
the 2012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Bernd Wiesberger
[Aged 41 Years]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ENTREPRENEURIAL SPIRIT

"Create a truly exquisite Ballantine's blend, but only when the time is right."

변하지 않는 궁극의 블렌딩을 수호하고 승화시키다 마스터 블렌더와 기업가 정신

오랜 역사 동안 발렌타인 위스키만의 정교하고 완벽한 블렌딩을 일관되게 지켜 온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는 오직 5명 뿐이었다.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한 영감과 헌신으로 200여 년의 전통을 한결같이 이어 온 마스터 블렌더. 그들의 직관과 열정은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오감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를 탄생시키고, 또 그 가치를 수호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시킬 것이라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VISIONARY 선대의 열망을 고귀한 결정체로 승화시킨 선지자

발렌타인의 창업자로 알려진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은 발렌타인만의 진귀한 블렌딩을 창조해 낸 초대 마스터 블렌더이기도 하다. 위스키에 대한 그의 직관과 열정은 이후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영감으로 자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발렌타인 위스키가 명품 스카치 위스키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의 중심에 있다. 발렌타인 위스키는 2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세월을 초월하는 일관된 블렌드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생각과 혁신을 반영한 발렌타인 17 리미티드 에디션과 진정한 고연산 위스키의 결실까지도 탄생시키며 조지 발렌타인의 오랜 열망을 고스란히 이어 왔다. 특히 '발렌타인 40년'은 고연산 위스키를 향한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 보고 최고의 몰트와 그레인으로 엄선된 오크통을 보존한 3대 마스터 블렌더 '잭 가우디(Jack Goudy)', 그리고 마침내 선대 마스터들의 선견과 꿈을 실현시킨 현(現)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이 흘린 땀과 흘러온 시간의 결정체다.

CRAFTSMAN 진귀한 블렌드에 담긴 위대한 헌신과 장인정신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던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은 후대 마스터 블렌더들의 숭고한 장인정신으로 이어져 이후에도 발렌타인의 품격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 받음으로써 최상의 위스키로서의 위상을 증명했으며,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과 열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품 위스키 발렌타인 17년과 21년을 탄생시켰다. 일찍이 위스키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기량을 보여준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역시 선대 마스터 블렌더들처럼 최고의 위치에서도 매년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수십 년에 걸쳐 온 제조 과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PIONEER 혁신과 사명을 블렌딩하여 재탄생하는 명작

일관된 맛과 향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성 못지 않게 발렌타인의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들이 보여주는 유니크함과 그 속에 보여지는 혁신성 또한 위스키 애호가들을 매번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1810년부터 발렌타인의 맛과 향의 핵심이었던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한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에디션'을 시작으로, 이국적이고 신비로우며 가장 완벽한 증류소란 찬사를 받은 스카파 몰트의 특색을 투영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에디션', 우아하고 따듯한 밀튼더프 몰트를 강조한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에디션'. 거기에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와 마스터 블렌더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까지, 변하지 않는 발렌타인의 가치를 지켜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선구자의 역할, 이것이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의 또 다른 사명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발렌타인 블렌드를 만들어라. 단, 때가 되었을 때만."이라는 말을 남긴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발렌타인만의 블렌딩처럼 완벽한 조화로 또 다시 탄생시키고 있는, 바로 그들의 숙명인 것이다.

Geo Ballantine

_ 발렌타인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Ballantine's Magazine

6th. vol.

CONTENTS

Heritage

07. Great Brands Think Alike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가는 헤리티지, 발렌타인 & 뱅앤올룹슨

Lifestyle

15. Discover the Legends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여섯 번째 대회

16. The Moments of Glory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빛나는 순간들을 돌아보다
아름다운 전야제 '갈라 디너'

22. The 6th. Ballantine's Championship
나흘간 펼쳐진 드라마틱한 명승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28. Learn a Great Skill in Golf Class
루이스 우스투이젠의 골프 클래스

38. The Trophy Tour For Golf Fans
명예와 노력의 상징, 우승 트로피를 미리 만나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

42. 2013 Scottish Open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과 맺은 오랜 인연, 스코티시 오픈

46.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전재홍 대표, '샤프트의 발달 과정'

48. Column for Golfers
박호윤 국장,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슈퍼스타의 산실'

Innovation

51. A Touching Story of Golf & Ballantine's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52.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우승자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세상에 없는 블렌딩'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Art of Blending

63. Share th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전하다, CEO 그리고 발렌타인

64. Valuable Time with Ballantine's
챔피언십의 감동이 더해진 테이스팅 클래스,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

Ballantine's Pick

69. Global Art & Culture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

72.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74. Ballantine's Special Concept Space 1
대자연의 숲 속에서 교감하는 발렌타인, 아난티 클럽 서울

78. Ballantine's Special Concept Space 2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다, 아일랜드 리조트

Heritage

01

Journey to Ballantine's

여유로운 주말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온몸으로 감상하는 풍성한 사운드의 깊이 있는 음악과
그에 더해지는 풍부한 풍미의 위스키 한 잔이 아닐지.
여기 흔한 오디오, 흔한 위스키와는 다른 특별한 두 브랜드가
평범한 오후, 당신의 깊은 감성과 남다른 감각을 터치한다.

Great Brands Think Alike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가는 헤리티지
발렌타인 & 뱅앤올룹슨

단순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시대를 뛰어넘어 꾸준한 사랑을 받는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확고한 브랜드 철학과 일관된 고집 아래, 오랜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와 본질을 지켜 나가면서 그 속에 트렌드를 재해석하는 혁신이 녹아 있을 때, 그 브랜드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게 된다.

스코틀랜드와 덴마크가 낳은
명품 헤리티지 브랜드

스카치 위스키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하여 지금까지 약 200년이 넘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보틀 안에 머금고 있는 발렌타인(Ballantine's)은 독보적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다. 전 세계 3대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이자 10대 주류 브랜드이며, 1827년 탄생 이래 유럽 최고 매출을 자랑하는 스카치 위스키인 동시에 아시아 지역 판매 1위의 수퍼 프리미엄급 위스키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50여 가지의 싱글 몰트와 그레인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특유의 맛과 향, 연산별로 다양한 위스키 포트폴리오 등으로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변함없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나라도 시대 배경도 다르지만 발렌타인과 다양한 교차점을 공유하는 브랜드가 있다. 덴마크하면 바로 생각나는 레고와 로얄코펜하겐, 이 두 브랜드와 함께 덴마크의 3대 기업으로 꼽히는 '뱅앤올룹슨(B&O)'이 그것이다. 뱅앤올룹슨은 1925년 덴마크의 전기공학교에서 만난 '피터 뱅(Peter Bang)'과 '스벤트 올룹슨(Svend Olufsen)'이 함께 세웠다. 두 창업자의 성을 따서 지은 브랜드 네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올해로 88년이 된 강소기업, 즉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세계적인 명품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다. 라디오를 시작으로 지금은 오디오, TV, 전화기, 스피커, 차량용 음향시스템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오디오 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스마트 TV
'베오비전 11(BeoVision 11)'

>>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

남다른 브랜드를 탄생시킨 창시자들의
열정과 기업가 정신

1822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에든버러의 식료품상이자 와인 위스키 상인이었던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 밑에서 일하겠다는 도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순간이 세계적인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5년간의 견습 기간을 거치며 조지 발렌타인은 훌륭한 와인을 구별해 내는 능력과 좋은 퀄리티의 몰트 위스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과 신사적으로 거래하는 노하우와 투철한 서비스 정신도 이때 익혔다.

그의 마스터인 앤드류 헌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좋으며 똑똑했던 조지 발렌타인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훗날 훌륭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견습 과정을 마친 조지 발렌타인은 19세 나이에 자신이 모아 둔 돈과 앤드류 헌터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자신의 사업에 쏟아부었다.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위스키 사업은 그 당시 모험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이상적으로 혼합시킨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기술과 남다른 열정으로 조지 발렌타인은 1853년 마침내 고연산 블렌디드 위스키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계속되는 확장 끝에 그의 상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스키 종류와 7,500리터가 넘는 위스키 재고를 보유한 상점 중 하나가 되었고, 발렌타인(Ballantine's)은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로서의 독보적인 브랜드 유산을 구축하며 빠르게 그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뱅앤올룹슨의 화려한 역사는 엔지니어 출신의 덴마크인 '피터 뱅(Peter Bang)'과 '스벤트 올룹슨(Svend Olufsen)', 두 젊은 공학도의 의기투합에서 출발한다. 어려서부터 전자 제품에 푹 빠져 있던 피터 뱅이 라디오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다 덴마크로 돌아와 같은 뜻을 품은 엔지니어 스벤트 올룹슨과 손을 잡은 것. 배터리 때문에 라디오 청취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이들의 협력은 1925년 코펜하겐에 두 사람의 성을 딴 뱅앤올룹슨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공통된 비전과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8년간 봉급도 받지 않고 작은 작업실에서 밤낮을 지새워 제품 개발에만 몰두한 끝에, 두 사람은 배터리 없이 플러그를 꽂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플러그형 일리미네이터(the Eliminator)'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고, 이어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당시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일리미네이터 발명을 계기로 뱅앤올룹슨은 경쟁이 심한 전자업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세계 최초로 연달아 출시하면서 성공의 발자취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오늘날까지 뱅앤올룹슨이 혁신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 개발에 몰두한 두 젊은 창업자의 정신과 열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01. 뱅앤올룹슨의 초창기 로고
02. 뱅앤올룹슨의 창업자 피터 뱅과 스벤트 올룹슨
03. 1925년, 뱅앤올룹슨 최초의 라디오

Bang & Olufsen
AKTIESELSKAB
01

02

03

최상의 블렌딩, 최고의 사운드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200년이 넘는 발렌타인의 긴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완벽한 균형감을 이루는 발렌타인 위스키 고유의 맛과 향이다. 그 타협할 수 없는 맛과 시대를 초월한 블렌딩의 일관성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마스터 블렌더'의 존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위스키를 제조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헌신과 끈기로 지켜 보며 그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숭고한 수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이 역할은 200년 동안 단 5명에게만 허락되었다.

2006년 당시, 발렌타인의 역사를 계승할 다섯 번째 마스터 블렌더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발렌타인 위스키의 고유한 스타일을 이어 오고 있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은 "마스터 블렌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일관성과 품질을 지키는 것이며, 발렌타인의 블렌딩은 세대를 이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위스키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기량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마스터 블렌더에 임명되었으며,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그의 열정과 장인정신, 직관은 최상의 원액을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블렌딩으로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블렌딩의 미학을 실현하는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
소리를 다루는
뱅앤올룹슨의 톤마이스터, **제프 마틴**

오디오로 출발한 뱅앤올룹슨의 기본 경쟁력은 누가 뭐래도 음질이다. 대부분의 스피커는 음향이 가장 잘 들리는 지점인 '스위트 스폿'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지지만, 현실에선 소비자가 꼭 그 지점에 앉는다는 보장이 없다. 뱅앤올룹슨의 라우드 스피커는 마이크를 통해 주파수를 측정하고 실내의 소파나 가구, 사람의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여 그 공간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Sound Perfection을 재현한다. 뱅앤올룹슨의 톤마이스터(Tonmeister) 제프 마틴(Geoff Martin)은 "뱅앤올룹슨만의 고유한 기술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음악을 최상의 음질로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해 '이동의 자유'를 줬다"고 말한다. 스피커가 사운드 외에도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할 수 있게끔 진화시키는 것. 뱅앤올룹슨의 독특한 음질 철학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라우드 스피커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뱅앤올룹슨에는 '톤마이스터'라는 직책이 있다. 톤마이스터는 오디오와 리코딩에 관한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물리학, 음향학, 전자공학에도 능통한 전문가로, 일반 엔지니어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소리까지 짚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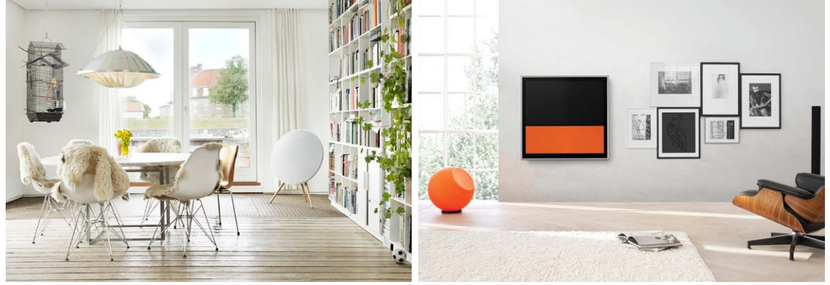
뱅앤올룹슨의 라우드 스피커가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각각의 라우드 스피커 사운드가 가진 특성을 공평하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 낸다. 이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운드를 구성하는 저음, 중음, 고음을 보다 정교하게 감상할 수 있다.

>>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정수, **발렌타인 40년**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격이 다른 미학의 가치

위스키가 단지 술이라면 발렌타인은 위스키가 아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시그니처 스타일과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예술적인 블렌딩은 발렌타인이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자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다. 발렌타인에 있어 '블렌딩'이란 단순히 위스키를 정확한 비율에 의해 섞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4개 지역의 고유한 풍미와 개성이 각기 다른 40여 종의 최상급 몰트 및 그레인 위스키가 마스터 블렌더의 오감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위스키의 맛과 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퍼펙트 밸런스', 그리고 10년 전과 오늘 마시는 발렌타인의 맛과 향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블렌딩의 미학, 즉 '아트 오브 블렌딩'은 오직 발렌타인만이 선보일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날의 발렌타인을 존재하게 하는 위대한 브랜드 유산이다.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과 혁신성이 반영된 최고의 명작, '발렌타인 40년'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과 마스터 블렌더들의 집념과도 같은 염원으로 끝끝내 탄생된 고귀한 결정체다. 지난해 3월에 출시되며 발렌타인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이 진귀한 보틀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Richard Fox)의 합작품. 보틀 표면에 새겨진 발렌타인 문장과 스털링 은장식은 모두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제작되어 예술 작품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뿜어 낸다. 보틀의 모든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발렌타인 문장(Ballantine's Crest) 역시 리차드 폭스의 손길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발렌타인의 역사성, 장인정신, 혁신성을 대변하고 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액의 약 80%가 증발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최고 연산의 위스키를 매년 선보인다는 것은 발렌타인만의 노하우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높은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발렌타인 40년은 매년 전 세계에 단 100병만 선보이고 있다.



>>
베오플레이 A9(좌), 베오비전 10(우) 등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의
뱅앤올룹슨 제품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매력적이다

창업 초기부터 뛰어난 기술을 인정받아 온 뱅앤올룹슨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 것 또한 미학, 바로 디자인이다. 'Design is Language'라는 슬로건답게, 또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친환경적인 북유럽 디자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답게, 뱅앤올룹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어떤 공간에 두어도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제품 디자인이 우리 삶에 익숙하고 친근한 사물이나 평범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예술 작품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뱅앤올룹슨은 현대적 디자인을 영구히 보존한다는 취지 아래 1972년 이후 뉴욕의 현대미술박물관에서 여러 종의 제품이 보관될 정도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그들의 남다른 철학은 최근 출시된 뱅앤올룹슨의 '베오플레이 A9'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오디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제품은 '세상에 없던 스피커'로 불린다. 둥근 접시 모양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디자인은 센스 있는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이 없으며, 제품 후면 상단에 손을 대고 좌우로 모션만 취해도 볼륨 조절이 되는 기능은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패브릭 커버의 색상과 원목 받침대의 재질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독특한 부분. 뱅앤올룹슨이 브랜드 명예를 걸고 진행한 스마트 업그레이드의 첫 적용 모델로, 모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베오플레이 A9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 2013'에서 '최고 혁신상(Best Innovation)'을 수상하는 동시에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 중 하나인 iF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상(product design)'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리고 명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들이 선택하는 발렌타인과 뱅앤올룹슨.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위스키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 속에 변함없는 가치를 이어 가려는 두 브랜드의 헤리티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Lifestyle

02

Leave an Impression

전설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과도 같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열린 그린 필드 위 어딘가에서도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획을 더해가고 있었다.

Discover the Legends

모두가 진정한 레전드였던 시간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여섯 번째 대회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골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계절이 찾아왔다.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환희의 순간,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며 강렬한 인상과 오래도록 긴 여운을 남겼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골프와 발렌타인은 다양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상징적인 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명경기와 명작의 오랜 가치를 함께 품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로서 총상금 220만 5천 유로(약 31억 원)에 달하는 대회 규모와 출전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메가 토너먼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를 맞이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큰 규모는 물론 다채로운 요소들로 골프 팬들을 반겼다. 세계 랭킹 7위의 루이스 우스투이젠, 매번 국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양용은과 김경태, 2014년 라이더컵 유럽팀의 단장에 선임된 폴 맥긴리, 전년도 챔피언 베른트 비스베르거 등 평소에 쉽사리 만나볼 수 없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출전하여, 본 경기 외에도 갈라 디너, 포토콜, 프로암 대회, 골프 클래스 등 다양한 자리에서 그들의 매력을 발산했다.
발렌타인은 대회를 앞둔 지난해 11월에 신인 골퍼 발굴과 국내 골프 발전을 위해 '로드 투 더 발렌타인' 대회를 개최, 발렌타인 챔피언십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선수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위해 특별한 패키지로 디자인된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과 작년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함께 만든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도 함께 선보였다.
한편 발렌타인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체가 역사라 할 수 있는 스포츠, 골프의 특수성과 전설적인 골프 선수들의 통찰력을 발견하고자 'Discover the Legends'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골프의 전설은 누구인지, 전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선수가 누구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 전설적인 선수들에게 찬사를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들의 훌륭한 플레이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THE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 OPENING GALA DINNER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빛나는 순간들을 돌아보다
아름다운 전야제 '갈라 디너'

올해로 6번째 대회를 맞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앞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전야제 '갈라 디너'의 밤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올해의 갈라 디너는 지난 5년간 개최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빛나는 순간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무드를 형성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하객들에게 인상 깊은 추억을 선물했다.

>>
장 마누엘 스프리에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이사도 갈라 디너에 참석해 기념 인사를 건넸다

프레임 속에 담아 낸
영광의 순간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23일, 대회를 기념하는 축제 '갈라 디너'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랭킹 7위 루이스 우스투이젠과 디펜딩 챔피언 베른트 비스베르거를 비롯해 폴 맥긴리, 양용은, 마커스 프레이저, 김경태, 배상문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오피니언 리더, 미디어 등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8년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개최된 이후, 올해로 6번째 대회 개최를 앞둔 만큼 이번 갈라 디너는 감동 넘치는 지난 시간과 오늘이 공존하는 영광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그 의미를 다양한 공간에서 되새길 수 있었다. 대형 액자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연출된 실내 공간은 마치 뮤지엄을 찾은 듯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챔피언십 대회 중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이 차례로 펼쳐지는 프레임 안의 영상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오래도록 머물게 했으며, 올해 대회 우승자를 위한 트로피가 진열된 포토월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로비 중앙 무대에는 그간 참가했던 영광스러운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조형물의 내부에 디스플레이된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또한 대회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02

01

03

04

>>
01. 역대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가 전시된 대형 조형물
02. 행사의 시작을 알렸던 백파이프 연주
03. 발렌타인 보틀을 양팔로 돌리며 입장하는 스타 플레이어들
04.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으로 하기스 퍼포먼스를 진행한 피터 프렌티스

05

06

>>
05. 대회를 앞두고 파이팅을 외치는 한국 선수들
06.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을 경청하는 선수들

스코틀랜드의 정취가
녹아 있는 밤

스코틀랜드가 남긴 위대한 유산 중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프와 발렌타인일 것이다. 이 둘의 귀중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발렌타인 챔피언십인 만큼 갈라 디너 행사 면면에서 스코틀랜드의 분위기가 묻어났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즐기던 실내가 일순간 조용해지고, 저 멀리서 들려 오던 백파이프 연주가 이윽고 장내에 울려 퍼지며 성대한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 마치 스코틀랜드의 자연 속에 동화된 듯 맑고 고운 연주가 실내를 가득 메웠고,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그랜드 볼룸의 게이트가 오픈되면서 게스트들의 입장이 이어졌다.

갈라 디너의 메인 프로그램은 단연 스타 플레이어들이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었는데, 이때가 스코틀랜드 분위기에 가장 취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백파이프 연주자를 선두로 셰프, 하기스(Haggis) 퍼포머, 스타 플레이어가 뒤를 이어 무대로 입장하면서, 선수들이 발렌타인 보틀을 양손에 들고 앞뒤로 굴리는 특이한 동작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하기스 세레모니를 맡은 피터 프렌티스가 무대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위트 있게 소개하는 순간은 관객들을 미소 짓게 했다.

본격적인 '하기스(Haggis)' 퍼포먼스가 진행된 후에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인 하기스가 제공되었는데, 평소에 쉽게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요리라 참석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객석의 모두가 기립한 후 다 함께 건배 제의를 하는 순간도 매우 이색적이었다. 스코틀랜드 전통 술잔인 '쿼익'에 발렌타인 17년을 따른 뒤, 스코틀랜드식 인사 '슬란지바'를 외친 참석자 모두는 어느새 스코틀랜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01

01

02

>>

01. 갈라 디너를 통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가 공개됐다
02. 다같이 '슬란지바'를 외치며 건배하기 직전의 모습
03. 입체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한 현대 무용

스토리가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감동의 긴 여운

이번 갈라 디너는 입장하는 순간부터 행사를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오감을 깨우는 다양한 요소들이 가득한 무대였다. '프레임' 형태를 활용하여 럭셔리하면서도 모던하게 꾸며진 실내 인테리어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빛나는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컨셉을 공간감 있게 잘 녹여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양한 영상 시스템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다.

홀로그램 아트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발렌타인 보틀과 발렌타인 챔피언십 영상에 현대 무용이 더해진 오프닝 무대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발렌타인의 헤리티지를 시각화한 고지도가 펼쳐지는 인트로를 시작으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돌아보는 하이라이트 영상과 마지막을 장식했던 이은결의 다채로운 매직 퍼포먼스 연출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화려했던 파티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지난 5년간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남긴 영광스러운 순간들만큼이나 올해 대회를 통해 새롭게 쓰여질 또 하나의 역사가 더욱 기대되고 설레는 밤이었던 이번 갈라 디너. 참석한 선수들은 물론 관객들 모두에게 감동의 여운을 남긴 올해의 전야제는 이틀 뒤에 펼쳐질 여섯 번째 대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힘차게 알렸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즐기는 발렌타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국내 팬들에게 주는 가장 큰 특혜 중 하나는 바로 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갈라 디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지는 녹색의 필드 위에서는 다소 차분하고 예민해진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갈라 디너에서는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미소를 만나볼 수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중 인상적인 선수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명의 선수였지만 큰 활약을 보이며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던 베른트 비스베르거는 갈라 디너 시작 전부터 행사장을 누비며 여유롭게 파티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파티 시작 전에는 폴 로리, 김경태, 배상문 선수가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 선보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국내 팬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고 있는 양용은, 김경태, 배상문 등 한국 선수들은 팬들의 사인,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팬들에게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했다.

02

03

04

>>

01. (왼쪽부터) 김경태, 폴 로리, 배상문 선수가 칵테일 퍼포먼스에 임하고 있다
02. 전년도 챔피언 베른트 비스베르거(우)도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03. 양용은 선수가 건배 후 퀘익을 머리 위로 뒤집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04. 팬들의 기념 촬영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는 배상문 선수

03

6th. BALLANTINE'S CHAMPIONSHIP

나흘간 펼쳐진 드라마틱한 명승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변덕스러운 날씨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그 우승 타이틀은 연장전에 걸친 접전 끝에 호주의 브렛 럼포드에게 돌아갔다. 6년 만에 얻은 값진 성과에 그는 캐디를 얼싸안고 오래도록 감격적인 순간을 마주했다.

>>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브렛 럼포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별들의 전쟁

지난 4월 25일,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매년 스타 플레이어들의 화려한 플레이와 호쾌한 샷을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골프 대회로 골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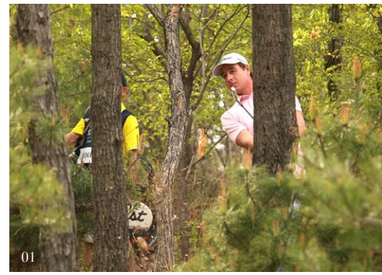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세계 랭킹 7위이자 2010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인 루이스 우스투이젠과 아시아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자인 양용은, 무서운 상승세로 우승을 확정 지었던 전년도 챔피언 베른트 비스베르거 등 쟁쟁한 선수들의 참가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또한 경기가 열렸던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는 첫날부터 소나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우승자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라운드 내내 우승자를 짐작하기 힘들었던 대회였던 만큼,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4라운드에 접어들며 브렛 럼포드는 줄곧 선두권을 차지하면서 우승에 근접한 듯 보였지만, 17번홀에서 치명적인 더블 보기로 실수를 범하면서 추월의 틈을 허용했다. 결국 11언더파의 성적으로 최종 라운드를 마친 브렛 럼포드와 피터 화이트포드 그리고 2010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마커스 프레이저, 이 세 명이 18번홀에서 연장 승부를 겨뤘으며, 승리의 화살은 다시 평정심을 찾고 이글을 성공시킨 브렛 럼포드에게 돌아갔다.

챔피언 브렛 럼포드와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동반자

하루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그의 심정을 대변하듯 '브렛 럼포드'는 우승을 확정 짓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캐디를 향해 달려가 오랜 포옹을 나눴다. 그의 캐디 '로니 로버츠'는 올해 67세로, 77년생인 브렛 럼포드에게는 아버지뻘이다. 4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무거운 캐디백을 메고 브렛 럼포드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캐디, 로니 로버츠는 그의 행동, 몸짓 하나하나를 예의 주시하며 혹여 소음으로 인해 예민해질 수 있는 그를 위해 관중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체력 보충을 위해 바나나를 손수 까서 그에게 건네주는 세심한 모습도 경기 중간 중간 눈에 띄었다. 우승 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던 그의 모습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슬럼프를 겪은 뒤 6년 만에 얻은 우승 타이틀이라 브렛 럼포드에게는 이번 대회가 더욱 값진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또한 그는 약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을 차지하게 된 것은 물론 작년 대회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함께 만든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도 선사 받았다. 경기 후 그는 "오늘 하루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골프의 묘미가 아닐까 한다. 하나의 샷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다시금 경험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내의 생일에 우승으로 축하의 선물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랑스런 쌍둥이와 지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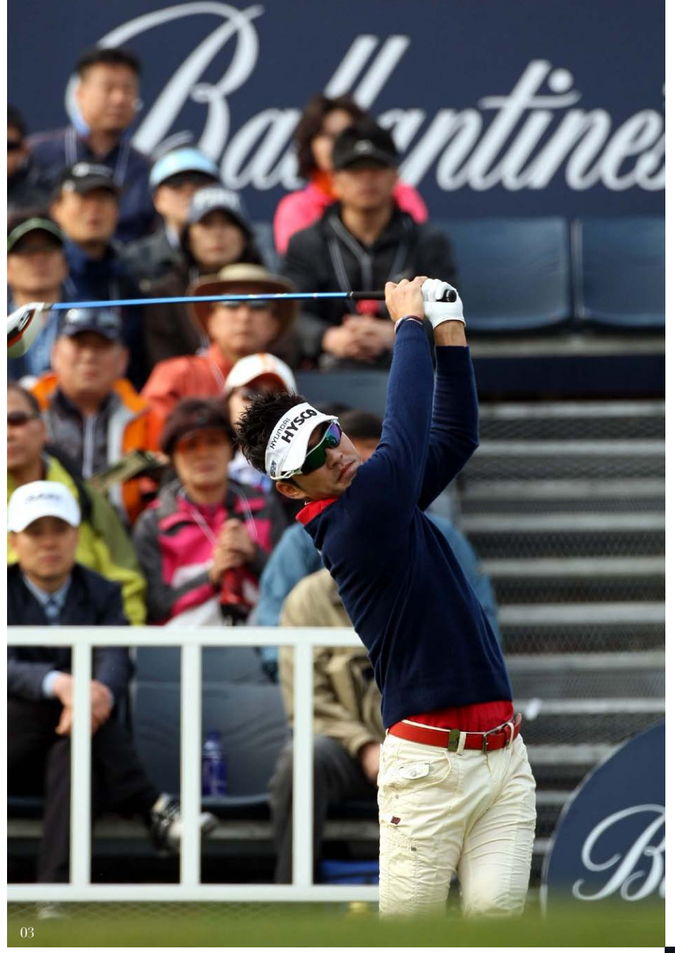
>>

01. 캐디와 함께 라인을 살피는 브렛 럼포드
02. 우승 후 주먹을 움켜쥐었다
03. 캐디 로니 로버츠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03

01

02


03

쟁쟁한 대결 속
한국 선수들의 선전

대회 초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기환 선수가 5언더파의 좋은 성적으로 첫 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마감하자 골프 팬들은 큰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홈 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경기인 만큼 한국 선수의 우승을 많은 골프 팬들이 염원하고 있었던 것. 특히 양용은, 김경태 등 17명의 한국 선수들이 3라운드에 진출한 뒤, 상위권 스코어보드에 박상현, 김형성 등이 랭크되자 결선 라운드 현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라운드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타수 차가 벌어지면서 아쉽게도 브렛 럼포드에게 우승자 타이틀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세계 정상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당당히 실력을 겨루며 우리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서는 김형성 선수가 7언더파 공동 6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뒤를 이어 홍순상, 김경태, 김기환 선수가 공동 11위로, 양용은 선수가 공동 49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특히 상위 50위 내에 8명의 한국 선수가 대거 포진하는 등 이를 통해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선수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회였다.

04

>>
01. 경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박상현
02. 경쾌한 티샷을 선보이는 홍순상
03.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상위권에 오른 김형성
04. 신중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김경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비하인드 스토리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상금 외에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다. 4라운드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발렌타인 홀'로 불린 17번홀에서 버디를 성공한 모든 선수들에게는 발렌타인 17년이 제공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총 47명의 선수가 발렌타인 17년을 받았으며, 우승자 브렛 럼포드를 포함한 5명의 선수들은 2번의 버디로 발렌타인 17년 2병을 선사 받았다. 또한 라운드당 최저타를 거둔 선수들에게는 발렌타인 21년이 제공되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김기환 선수를 비롯한 5명의 선수가 공동 1위를 거두어 발렌타인 21년과 함께 선두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편 악천후로 경기가 몇 차례 중단되기도 하는 등 날씨가 이번 대회를 시샘하는 듯 했으나, 첫 라운드와 마지막 라운드에서 각각 총 2번의 홀인원이 기록되며 경기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날려버렸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주는 데 큰 공헌을 하면서 이후 대회 우승의 견인차 역할도 톡톡히 했다. 올해 대회 우승자인 브렛 럼포드는 6년 만에 우승을 거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유러피언 투어 볼보차이나 오픈에서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김형성 역시 일본프로골프투어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뒀다. 더불어 매년 꾸준하게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있는 배상문은 대회가 끝난 뒤 출전한 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08년 첫선을 보인 이후,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로서 세계 최고의 골프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 젊은 골프 선수들에게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견주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 매 대회를 거치면서 한국 골프 유망주들의 앞날이 더욱 밝게 느껴지는 것 또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남기는 긍정적이고도 인상 깊은 긴 여운 때문이 아닐까. 마치 발렌타인 위스키가 그러한 것처럼.

01

02

>>
01. 17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년이 제공되었다
02.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브렛 럼포드

Learn a Great Skill in Golf Class

스타 플레이어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루이스 우스투이젠의 골프 클래스

2010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인 루이스 우스투이젠 선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골프 팬들에게 '필드 위의 슈렉'이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그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밝은 표정과 재치 있는 멘트로 골프 클래스를 이끌었다.

세계 랭킹 7위의 성적을 보이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우스투이젠. 그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로 한국을 방문한 첫 느낌을 묻는 질문에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스윙, 전략, 골프 철학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드라이버와 아이언으로 스트레이트 샷, 드로우 샷, 낮고 높은 탄도의 샷을 자유자재로 선보였다. 바로 눈앞에서 우스투이젠의 훌륭한 샷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클래스 참가자들은 지금의 순간이 믿기지 않는 듯 환호와 함께 연신 '굿 샷', '나이스 샷'을 외쳤다.

또한 그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를 위한 자신만의 대처법을 공개했다. 바로 필드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며, 오직 볼을 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 코스에서 스윙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다양한 상황을 대입하여 바른 스윙 자세를 가르치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유한 그는 2라운드 경기 종료 후 곧바로 클래스에 참여, 체력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한 진행과 유익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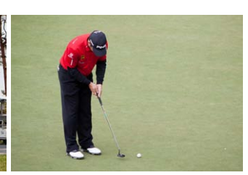
골프 클래스 참가자 인터뷰

이창희 >> 골프와 발렌타인 둘 다 좋아해서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골프 클래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요. 이전 골프 클래스에서 주로 쇼트 게임, 벙커샷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면 올해는 루이스 우스투이젠의 파워풀한 장타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힘있게 뻗어 나가는 샷을 보다 보니 마음까지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PRO GOLFER'S TIPS _꼭 이것만은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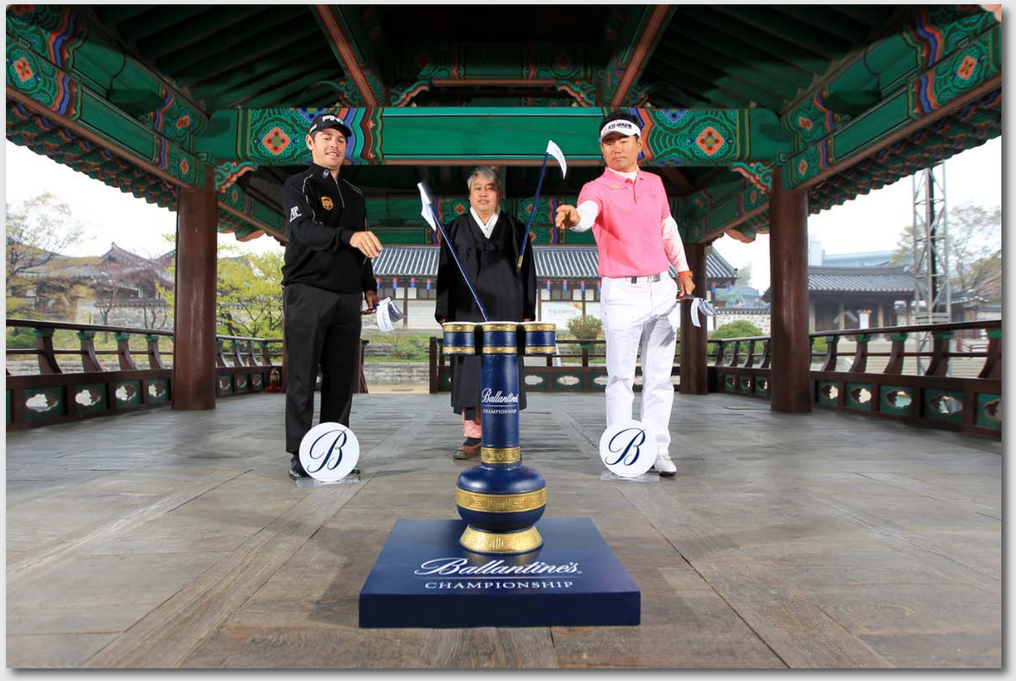
루이스 우스투이젠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

>> 가장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재능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티잉 그라운드에서 드라이버가 아닌 3번이나 5번 우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드라이버 혹은 우드를 선택하세요! 덧붙여 볼을 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모든 것들을 내려 놓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이 없으면 그 샷을 시도하지 말고, 확신이 있을 때에만 샷을 시도하세요! 이것이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 투호를 체험한 **루이스 우스투이젠 & 양용은**

지난 4월 23일, 남산 한옥마을에서 포토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자인 남아공의 루이스 우스투이젠 선수와 한국의 양용은 선수. 한국의 미를 담은 한옥 마을을 먼저 둘러 본 이들은 투호 놀이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첫 투호 체험을 한 루이스 우스투이젠은 "골프 선수라서 투호에는 당연히 익숙지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브렛 럼포드(Brett Rumford)

_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버디의 기회가 많고 특색 있는 블랙스톤 골프 클럽의 코스를 경험하면서 나흘 내내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고 유능한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고 그 틈 안에서 우승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연장전에서 저에게 찾아온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매우 기쁩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앞서 개최된 마스터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아담 스콧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경기 모습을 밤을 지새며 지켜봤는데, 뛰어난 플레이와 변치 않는 착한 인성을 갖춘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 받는 모습을 보면서 롤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훌륭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하기까지 골프 선수로서 어려운 시기도 보냈지만, 그럴수록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뎌 준 사랑하는 아내 샐리와 쌍둥이, 그리고 제 주변에서 늘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reaming of the Legends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찬 도약, 골프의 전설을 꿈꾸다

녹색 필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이라면 누구든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전설적인 존재로 남고 싶어하지 않을까.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면모와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며, 골프가 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포츠인지를 입증했다.

루이스 우스투이젠(Louis Oosthuizen)

"누구나 후대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지요. 존경하는 그들의 이름이 전설로 남기를 바라기도 하고, 스스로가 전설이 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벤 호건이나 진 사라젠 같은 선수들의 오래된 경기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플레이에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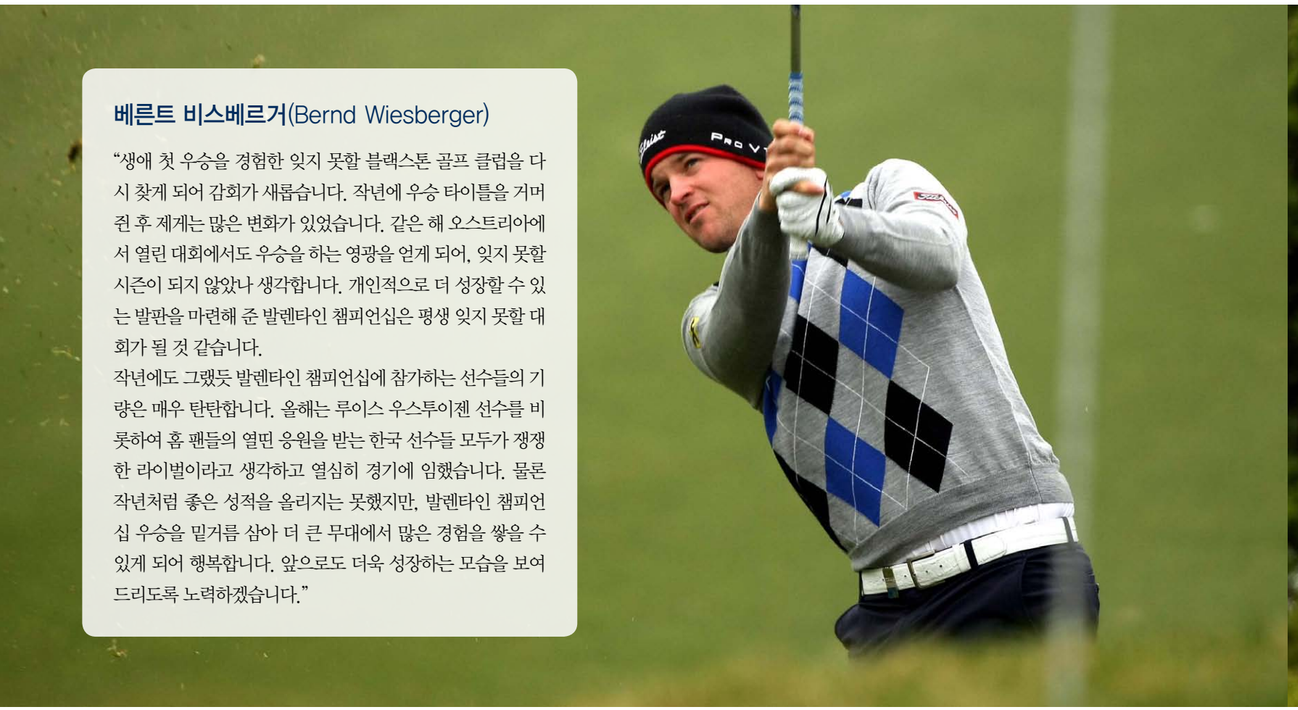
남아공의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 어니 엘스는 대단한 영감을 주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저 역시도 그를 존경합니다. 어니 엘스 재단의 후원을 받은 한 명으로서, 이제는 저도 제 이름을 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받았던 혜택처럼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TV를 보고, 지인들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아마 다른 선수들도 분명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을 겁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우승의 문턱에서 조금 멀어졌네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보낸 첫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양용은(Yang Y.E.)

"많은 이들이 잭 니클라우스나 아놀드 파머와 같은 선수들을 '살아있는 전설'로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세운 우승 기록이 대단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코스 밖에서 실천한 훌륭한 업적들이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골퍼들이 그들을 '본받고 싶은 전설적인 골퍼'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테고요.

현재 한국 골프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노승렬, 배상문 등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앞으로의 미래가 밝으며, 한국에서도 전설적인 골퍼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 중의 하나로, 제 고국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회 분위기도 좋고, 홈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기에 매년 대회가 기다려집니다. 대회 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던 참이라, 꼭 우승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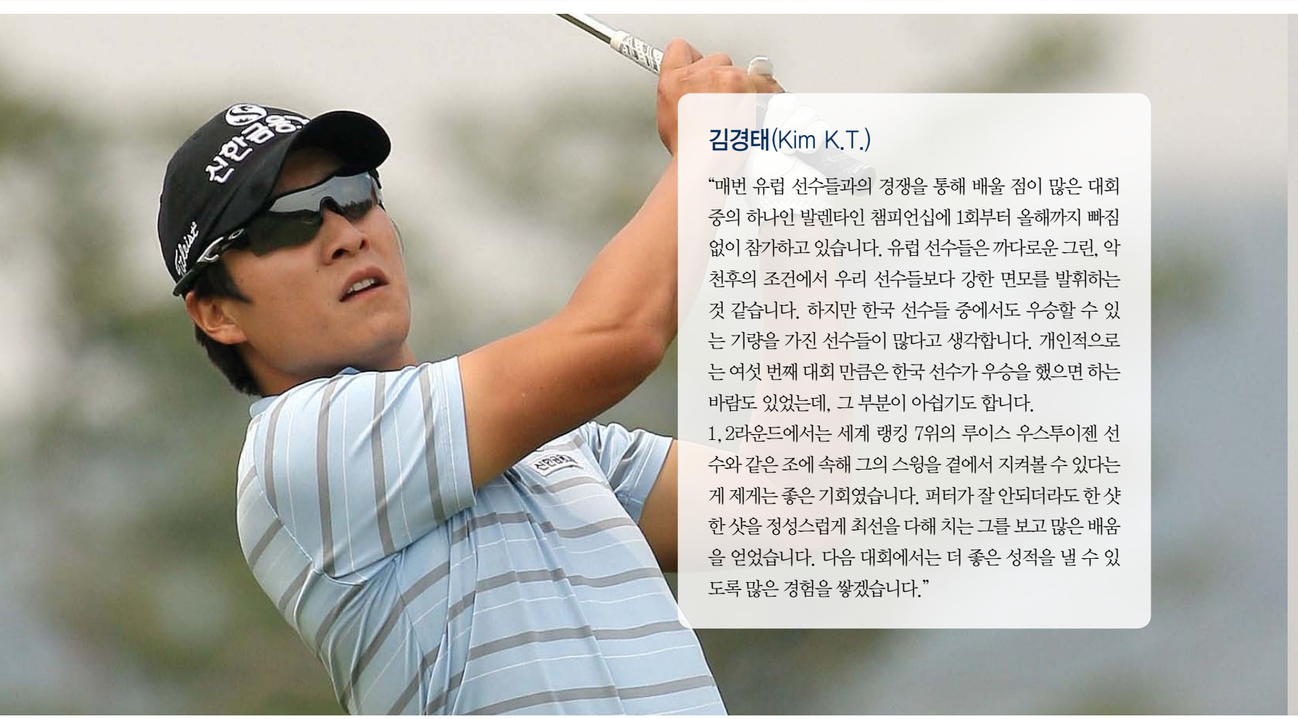


베른트 비스베르거(Bernd Wiesberger)

"생애 첫 우승을 경험한 잊지 못할 블랙스톤 골프 클럽을 다시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후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 잊지 못할 시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평생 잊지 못할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은 매우 탄탄합니다. 올해는 루이스 우스투이젠 선수를 비롯하여 홈 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는 한국 선수들 모두가 쟁쟁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을 밑거름 삼아 더 큰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커스 프레이저(Marcus Fraser)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늘 깔끔하고 안정된 진행이 돋보이는 대회로, 블랙스톤 골프 클럽의 까다로운 코스만 잘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경기에 충실히 임했던 것이 공동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0년 당시, 7년간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 값진 우승을 거뒀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올해도 그 때의 영광을 재연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아쉽게도 연장전에서 브렛 럼포드에게 우승 타이틀을 넘겨 주었네요. 무명이었던 제가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브렛 럼포드도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의 침체기를 딛고 얻어낸 값진 우승이었기에 그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호주 출신이기도 한 그에게 경기가 끝난 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김경태(Kim K.T.)

"매번 유럽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배울 점이 많은 대회 중의 하나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1회부터 올해까지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수들은 까다로운 그린, 악천후의 조건에서 우리 선수들보다 강한 면모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우승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섯 번째 대회 만큼은 한국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1, 2라운드에서는 세계 랭킹 7위의 루이스 우스투이젠 선수와 같은 조에 속해 그의 스윙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퍼터가 잘 안되더라도 한 샷 한 샷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치는 그를 보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쌓겠습니다."

배상문(Bae Sang-moon)

"지난해부터 바뀐 새로운 캐디, 코치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오랜만에 한국을 찾게 된 터라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를 많이 기대하면서 참가했습니다. 평소 롱게임, 숏게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상승해 있었는데, 성적이 마음 먹은 대로 따라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강인한 마인드와 그를 뒷받침할 만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 기간 동안 많이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 Special Ballantine's Bar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발렌타인 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진행된 나흘 동안, 블랙스톤 골프 클럽 내 퍼블릭 빌리지와 발렌타인 공식 숙소였던 곤지암 리조트에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바가 마련되었다.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은 물론 경기를 마친 선수, 캐디 모두가 이 특별한 공간에서 발렌타인의 깊고 풍부한 향취에 흠뻑 젖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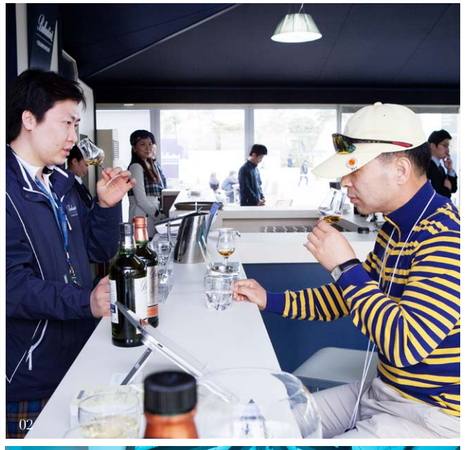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대회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현장을 찾은 골프 팬들에게 독특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바가 퍼블릭 빌리지 내에 자리 잡아 다양한 연산별 발렌타인과 색다른 발렌타인 칵테일을 한곳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념하여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시선을 사로잡았고,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 덕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칵테일 또한 한층 더 인기를 끌었다. 슬러시 타입의 '발렌타인 17 아이스'와 상쾌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발렌타인 17 후레쉬'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음용 스타일로 안내하는 독특한 칵테일로,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발렌타인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모자, 발렌타인 17 미니어쳐,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골프장의 코스맵 '야디지북'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다.

발렌타인 바에서는 테이스팅 기회를 직접 가져 볼 수 있는 '미니 멘토링 클래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발렌타인 앰버서더가 직접 발렌타인의 오랜 역사와 올바른 테이스팅 문화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가자들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정보, 유익한 팁, 발렌타인과 연관된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발렌타인 17, 발렌타인 17 밀튼더프를 차례로 음미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발렌타인 챔피언십 공식 숙소인 곤지암 리조트 내에 위치한 'B-6ix' 바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저녁 시간부터 발렌타인 바로 꾸며져, 발렌타인 위스키와 발렌타인 칵테일을 제공했다. 이곳에서 '캐디들의 밤'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동안 경기를 마친 선수들과 캐디 등 각계각층의 대회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01


02

03

04

05

>>
01. 발렌타인 바 내에 미니 멘토링 클래스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02. 발렌타인 앰버서더의 설명에 따라 시음하고 있는 모습
03. 04.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테이스팅을 위한 세팅
05. 공식 숙소인 곤지암 리조트 내에 마련된 발렌타인 바

Mini Interview

미니 멘토링 클래스로 발견한 발렌타인의 매력

김종인(좌) >>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는 편이었는데도 발렌타인의 히스토리에 대해 알고 난 후에 테이스팅을 해 보니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맛과 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의영(우) >> "위스키하면 왠지 남성들이 즐기는 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발렌타인을 마셔 보니 여성들이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맛이 좋았습니다. 물을 섞어 테이스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신기했고, 설명을 들으며 마셔서 그런지 발렌타인에 담겨 있는 노력이 직접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The Trophy Tour For Golf Fans

명예와 노력의 상징, 우승 트로피를 미리 만나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2주간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를 진행했다. 전국의 클럽하우스에서 순회 전시된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는 우승자에게 수여되기 전 그 감동을 미리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Quaich]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트로피 '퀘익(Quaich)'

01

02

03

04

05

발렌타인은 2008년부터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골프와 발렌타인의 귀중한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명성에 맞게 골프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전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의 트로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투어'는 우승자의 손길이 닿기 전 가까이에서 트로피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 팬들에게는 대회를 관전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선사하는 우승 트로피는 독특한 디자인 만큼이나 특별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 '퀘익(Quaich)'은 스코틀랜드를 상징함과 동시에 골프와 발렌타인의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퀘익은 고대 스코틀랜드의 부족장들이 평화를 기원하며 술을 함께 나누던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전통 위스키잔을 의미하며, 우승자의 트로피는 이 퀘익을 본떠 만들어졌다. 우승자 트로피는 영국 축구 챔피언십 리그와 AFC 아시안컵의 트로피를 만든 영국 출신의 유명한 트로피 제작자 토마스 라이트가 92.5% 순도의 은으로 손수 제작한 것으로, 멀리서도 돋보이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그 품격이 인상적이다.

지난 4월 8일 아난티 클럽 서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는 남춘천 컨트리 클럽,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 힐드로사이 컨트리 클럽, 안성 베네스트 골프 클럽을 거쳐 올해 대회 개최지인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에 마지막으로 전시됐다. 각각의 클럽하우스마다 하루 8시간 동안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칵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발렌타인 부스에서는 발렌타인 17년을 보다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슬러시 형태의 발렌타인 17 아이스를 제공했다.

한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기다려 온 골프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되었다. 트로피 투어가 열리는 각 골프 클럽에서는 발렌타인 17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챔피언십 기간 동안 18번홀 VIP 마퀴텐트인 홀인원 클럽에 입장이 가능한 VIP 패스를 비롯해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챔피언십 대회 모자, 티셔츠 등 특별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인터내셔널 위스키 마케팅팀 김경연 팀장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통해 열정, 인내, 전문성 등 발렌타인 위스키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매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트로피 투어는 우승 트로피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발렌타인 위스키의 전통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골프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는 최종 라운드에서 연장 끝에 극적인 우승을 얻어 낸 호주 출신 브렛 럼포드가 차지했다. 그는 시종일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승 트로피를 향해 달콤한 키스를 날렸다. 그가 느꼈을 짜릿한 우승의 영광 뒤에는 많은 골프 팬들이 트로피 투어를 통해 마음 속으로 미리 남긴 응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을 지도 모른다.

>>

01.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여성 골퍼들
02. 현장에서 '발렌타인 17 핫초코' 시음이 이뤄지기도 했다
03. 이벤트를 통해 모자, 골프볼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다
04. 트로피 투어가 열린 각 클럽하우스에 마련된 포토존
05. 포춘 쿠키를 열어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이벤트 참가자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2013 Scottish Open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과 맺은 오랜 인연
아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지난 7월 11일부터 4일간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의 캐슬 스튜어트 골프 링크스에서 '2013 아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이 열렸다.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스코티시 오픈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대회로, 발렌타인은 이 골프 토너먼트를 올해로 7년째 후원해 오고 있다.

골프와 발렌타인의 고향에서 펼쳐지는
전설적인 승부

스코틀랜드는 전설적인 스포츠인 골프가 처음 시작된 곳이자, 완벽한 블렌딩의 미학을 자랑하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발렌타인은 1960년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렌타인과 골프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8년부터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있으며, 발렌타인과 골프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스코티시 오픈'을 2007년부터 공식 후원해 오고 있다.

2013 스코티시 오픈에서는 연장전 승부 끝에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준 필 미켈슨이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그는 우승 트로피 외에 발렌타인 30년을 부상으로 수여 받기도 했다. 또한 12번홀에서 이글을 기록한 모든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2년이, 데일리 최저타를 기록한 선수들에게는 발렌타인 17년이 제공됐다. 더불어 경기가 진행된 골프 클럽 내에는 골프 팬들이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발렌타인 바가 마련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

스코티시 오픈은 스코틀랜드 북서부 인버네스에 위치한 캐슬 스튜어트 골프 링크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곳은 200여 년의 발렌타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인 '글렌버기(Glenburgie) 증류소'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발렌타인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 피터 무어는 "발렌타인의 시그니처 몰트를 생산하고 있는 글렌버기 증류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3년 전부터 스코티시 오픈이 치러지고 있다"며 "7년 동안 후원해 오고 있는 스코티시 오픈은 발렌타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언급했다.

올해 대회에는 해외 스타 플레이어들은 물론 역대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특히 눈길을 끌었다. 베른트 비스베르거(2012년 우승), 마커스 프레이저(2010년 우승), 통차이 자이디(2009년 우승) 등 역대 우승자를 비롯하여 어니 엘스, 대런 클라크, 미구엘 앙헬 히메네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회를 빛내 주었으며, 국내 선수로는 강경남이 유일하게 참가하여 쟁쟁한 승부를 겨뤘다.

>>
01. 우승자 필 미켈슨에게 발렌타인 30년이 수여되었다
02. 캐디와 포옹을 나누는 필 미켈슨

01

02

SPECIAL INTERVIEW

세계적인 골프 선수이자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인 통차이 자이디와 마커스 프레이저를 2013 스코티시 오픈에서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골프와 전설(legend)'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통차이 자이디(2009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 "전설적인 골프 선수는 게임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위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플레이는 정상을 꿈꾸는 골퍼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줍니다. 잭 니클라우스와 아놀드 파머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골프에 빠져들지 않았을 지도 모르죠. 저는 전설들의 경기 모습을 담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꿈을 키워 왔습니다. 사실 몇 주 전, 전설적인 존재로 여기던 아놀드 파머와 마주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 순간은 제가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 다시금 투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과 동시에 이번 대회를 위한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었던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커스 프레이저(2010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 "그렉 노먼은 같은 호주 국적을 가진 선수라는 점 이외에도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을 기록한 잭 니클라우스와 아놀드 파머 같은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왜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골프의 전설로 오르내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플레이 방식과 샷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게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의 플레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 중 하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프의 탄생지인 스코틀랜드에서 경험하는 스코티시 오픈은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멋진 코스뿐만 아니라 수 세기 동안 골프의 전설을 탄생시킨 기념비적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Great Impressions on the Field

필드 위에서 은은하게 전해지는 발렌타인의 풍미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자연 속에서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골프 대회를 지난 5월,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골프 클럽 내에 발렌타인 미니 바가 마련되는 등 대회 참가자들에게 발렌타인만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01

02

03

>>

01.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반얀트리 친선 골프 대회
02. 한국-프랑스 친선 골프 대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에 임하는 선수들
03. 필드로 이동하기 전 '발렌타인 17 아이스'의 테이스팅이 이루어졌다

상쾌한 발렌타인 칵테일의 매력을 접하다
반얀트리 친선 골프 대회

지난 5월 30일, 뉴서울 CC에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주최하는 친선 골프 대회가 열렸다. 약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대회를 찾은 가운데 반얀트리 친선 골프 대회의 본격적인 라운딩이 시작된 것은 오후 1시. 이날 경기는 총 18홀 경기로 치러졌으며, 클럽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친선 경기였던 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한편 경기가 열린 골프 클럽 내에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미니 테이스팅 바가 따로 꾸며져 주변의 관심을 끌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 대회가 진행되면서 슬러시 타입으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칵테일인 '발렌타인 17 아이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발렌타인 17 아이스를 마신 참가자들은 처음 맛보는 발렌타인 칵테일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발렌타인 앰버서더에게 연신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대회 현장에서는 발렌타인 17, 발렌타인 17 밀튼더프도 함께 테이스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많은 참가자들이 발렌타인만의 깊은 향취와 풍부한 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조화로운 맛과 향을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즐기다
한국-프랑스 친선 골프 대회

반얀트리 주최 골프 대회에 앞서 지난 5월 13일에는 프랑스 관광청과 한불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한국-프랑스 친선 골프 대회'가 가평에 위치한 베네스트 골프 클럽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이 대회는 한국과 프랑스간의 국제적 관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도 약 14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경기에 임했다. 특히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이사도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숨은 실력을 발휘했고, 시상식에서는 직접 시상자로 참여,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경기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만찬에서는 발렌타인 17 아이스가 세팅되었다. 발렌타인 17 아이스는 시원하면서도 상쾌한 발렌타인 칵테일만의 특별한 매력을 전하며, 축하의 밤을 발렌타인의 향기로 물들였다. 시상식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Leave an Impression 상(메달리스트), Perfect Balance 상(단체 1위) 수상자들에게 각각 발렌타인 30년, 발렌타인 21년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마치 발렌타인 위스키와도 같이 깊은 여운을 남긴 이번 대회는 양국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MFS 골프 대표이사 /
체육학 박사

전재홍

> 샤프트는 스틸이든 카본이든 외관상으로 같아 보이지만 성능의 차이가 많고, 자신의 몸에 맞는 클럽을 선택할 때는 헤드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샤프트의 발달 과정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엔진이라면, 클럽에서의 엔진 역할은 바로 샤프트이며 이는 사람으로 치자면 허리에 해당한다.

필자는 종종 골퍼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헤드(head)와 샤프트(shaft)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관한 질문이다. 물론 둘 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골프 클럽을 선택할 때 외관상의 재질이나 크기, 로프트(loft), 라이(lie) 등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엔진이라면 클럽에서의 엔진 역할은 바로 샤프트이며, 이는 사람으로 치자면 허리에 해당한다. 즉 샤프트는 골퍼의 운동에너지를 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굳이 따졌을 때 클럽 전체 기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샤프트의 이러한 발달 과정은 나무에서 스틸(steel)로, 또 탄소섬유로의 소재 개발과 무게의 경량화 과정 그리고 다양한 강도(flex)의 구현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골프가 시작된 영국에서 초기에 제작된 골프 클럽의 샤프트는 주로 과일나무의 가지가 사용됐다. 이유는 과일나무가 질긴 성질을 갖고 있어 볼을 쳤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강도(flex)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때 주로 사용된 것이 호두나무과의 일종인 '히코리'라는 과일의 나뭇가지였다. 샤프트의 소재로 나뭇가지를 사용할 때도 중량과 경도가 고려된다. 나뭇가지가 파손되지 않을 것만 고려하면 너무 무겁고 딱딱하며, 낭창거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고려하면 파손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히코리 나뭇가지는 이런 조건에 가장 적합했다. 히코리 샤프트도 어느 정도의 강도(flex) 조절이 가능했는데, 그 방법은 직경을 굵게 하면 딱딱해지고 가늘게 하면 유연해지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무 재질은 대량생산이 용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부러지고 다양한 강도 조절이 어려웠으며, 고가라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1908년 미국의 '아서 나이프'에 의해 세계 최초로 튜브 형태의 스틸 샤프트가 개발되었고, 1910년 특허를 출허함으로써 스틸 샤프트가 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스틸 샤프트의 출시는 과거 소량의 수제품 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했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균일하고 기능성 있는 샤프트의 출시로 골프 스코어가 급격히 향상되자 영국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를 문제 삼아 스틸 샤프트 사용을 한때 규제하기도 했다. 이 규제는 1924년에 해제되었고, 스틸 샤프트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우주 항공 소재로 개발된 것이 바로 카본 소재다. 카본 또는 그라파이트 소재를 컴포지트(composite)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꿈의 소재'라고 불릴 정도로 혁명적인 소재다. 이 소재는 애초에 낚싯대나 샤프트를 만드는 소재가 아니라 우주 항공 소재로 개발되어 비행기의 동체는 물론 풍차 날개와 건축 소재로도 사용되는 특수 소재로, 미국에서 개발되었지만 일본에서 주로 발전되었다. 석유에서 추출한 아크릴 소재를 고열로 처리하여 탄소섬유로 제작한 카본 소재는 처음에는 소재 불량과 제작 기술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출발했다. 하지만 다양한 무게(weight)와 강도(flex)로 출시되고,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현재 우드는 99% 이상을, 아이언은 65%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샤프트는 스틸이든 카본이든 외관상으로 같아 보이지만 성능의 차이가 많고, 자신의 몸에 맞는 클럽을 선택할 때는 헤드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클럽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_ **전재홍** (jjh@mfsgolf.com)

Column for Golfers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사업국장

박호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슈퍼스타의 산실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대 우승자들은 미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를 오가며 슈퍼스타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내년에도 국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돼 계속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가게 됐다.

세계 랭킹이 253위에 불과했던 럼포드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어 올린 직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그의 골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셈이다.

호주의 브렛 럼포드(36)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여섯 번째 주인공이 됐다. 럼포드는 지난 4월 28일 이천 블랙스톤 골프 클럽(파72)에서 끝난 대회의 최종 라운드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피를 말리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올라 자신의 유러피언 투어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럼포드는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2010년 이 대회 챔피언이었던 마커스 프레이저, 그리고 피터 화이트포드와 동타를 이뤘지만, 연장 첫 홀에서 극적인 이글을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럼포드는 2007년 9월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 우승 이후 무려 5년 6개월 만에 다시 유러피언 투어 정상에 섰다.

이날 럼포드가 잡아낸 연장 첫 홀 이글은 2008년 이 대회가 개최된 이래 가장 극적인 한 방으로 평가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이었다. 16번홀까지 2타 차 선두를 지켜 손쉬운 우승이 예상됐던 럼포드는 6년 가까이 우승을 해보지 못한 탓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은 듯, 17번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2타를 잃어 연장에 끌려 들어갔다. 연장전에 앞서 레인지에서 몇 개의 티샷으로 스윙을 점검한 럼포드는 티샷을 페어웨이 한복판으로 날린 뒤 두 번째 샷을 핀 1미터에 붙여 결국 극적인 이글을 잡아내며 오랜 승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럼포드의 우승은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인 그래엄 맥도웰(북아일랜드)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맥도웰은 지난 2008년 제주 핀크스 골프장에서 열렸던 발렌타인 챔피언십 첫 대회에서 지브 밀카 싱(인도)과의 연장 승부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 맥도웰은 18번홀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싱이 먼저 핀 2미터에 붙였으나 자신은 그보다 더 가까운 1미터 지점에 볼을 떨구며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2002년 프로로 전향한 맥도웰은 발렌타인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이전까지 유러피언 투어에서 2승밖에 올리지 못했으나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을 계기로 세계 톱클래스 선수로 급성장한 바 있다. 2년 뒤인 2010년 미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 당당히 '메이저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도 지난 5월 볼보 월드 매치 플레이 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르며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투어 통산 8승을 기록 중인 맥도웰은 현재 세계 랭킹 9위이며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 부문에서 올해 US오픈 챔피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마테오 마나세로(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다.

럼포드도 이 같은 맥도웰의 성공 사례를 재현하고 있다.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직전, 세계 랭킹이 253위에 불과했던 럼포드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어 올린 직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이어 열린 볼보 차이나 오픈에서도 4타 차 우승을 차지하며 2주 연속 유러피언 투어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월 현재 세계 랭킹 78위까지 치솟은 상태이며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에서도 당당히 6위에 올라 있다. 럼포드로선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그의 골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셈이다.

2009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2회 대회에서 한국의 강성훈을 연장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태국의 통차이 자이디(44)는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유러피언 투어의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 중이다. 통차이는 지난 3년간 우승이 없었으나 지난해 ISPS 한다 웨일스 오픈에서 통산 5승째를 거두며 재기에 성공, 현재 세계 랭킹 50위권,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 10위를 달리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당대 세계 랭킹 1위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1년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당시 최종 라운드 18홀까지 미구엘 앙헬 히메네스(스페인)와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난해에도 노르디아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는 등 유러피언 투어 통산 22승을 마크하며 세계 골프계의 강호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 랭킹은 12위이다.

이렇듯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대 우승자들은 미PGA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를 오가며 슈퍼스타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비록 6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나 해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유러피언 투어이자 아시아권 최고 권위의 토너먼트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내년에도 국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돼 계속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가게 됐다.

한편 올해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우승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성(33, 현대하이스코)이 최종일 5타를 줄이는 대분전으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6위에 올라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김경태(27, 신한금융그룹)와 김기환(22, CJ오쇼핑)이 합계 6언더파 282타로 나란히 공동 11위에 올랐다. 개최 7회째를 맞는 내년에는 한국 선수 우승자가 탄생해 다른 역대 챔피언들처럼 세계적인 선수로 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_ **박호윤** (phy2006@kpgt.com)

Innovation

03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세상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
잠시 스치는 만남, 잘못된 만남 그리고 필연적인 만남.
발렌타인과 골프와의 만남은 어떨까. 발렌타인 챔피언십이나
골프와 관련된 특별한 블렌드들을 보면 그들은 분명
서로 바라던 운명 같은 만남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Tasting Notes

Color 영롱한 황금빛 앰버 컬러
Nose 우드와 바닐라 느낌이 균형 잡힌 깊고 우아한 향
Body 크리미하고 매혹적인 풀 바디
Taste 오크와 피트의 스모키한 향이 묻어나는 허니의 달콤한 맛
Finish 가벼운 스모키함과 바닐라의 긴 여운

A Touching Story of Golf & Ballantine's

필드 위의 열정이 서려 있는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녹색의 필드를 연상케 하는 그린 컬러의 보틀, 그리고 보틀 위에 더해진 골퍼의 이미지와 발렌타인을 상징하는 '*B*' 로고의 조합만으로도 이 스페셜 에디션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르익어 가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처럼, 새로운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남기는 좋은 인상과 그 여운 또한 더욱 깊어진다.

발렌타인은 해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진정한 블렌딩의 미학을 선사하는 발렌타인 17년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2010년부터 발렌타인 17년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매년 출시되고 있는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를 기념하여 골프와 발렌타인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앞둔 지난 3월,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첫선을 보였다. 전국 주요 백화점 및 할인 매장을 통해 출시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번 에디션은 각별한 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는 발렌타인과 골프의 전통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발렌타인이 매년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틀에서부터 패키지까지 새롭게 디자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골프 및 위스키 애호가들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진한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리미티드의 가치를 소유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됐다.
한편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기념하여 구매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갤러리 교환권, 챔피언십 모자, 보스톤 백 등 골프 관련 아이템을 증정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챔피언십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블랙스톤 골프 클럽 내에 위치한 발렌타인 바에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전시하여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우승자와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세상에 없는 블렌딩'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선별한 최상급 몰트, 그레인 위스키 원액에 전년도 챔피언의 취향이 반영되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위스키. 매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헌정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단순히 챔피언을 위해 준비된 부상 그 이상의 의미를 선사하며, 독창적인 발렌타인 블렌딩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가고 있다.

전년도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특별한 만남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앞두고 발렌타인의 현(現)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가 골프의 고향 세인트앤드루스(Saint Andrews)를 찾았다.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작고 그림 같은 도시인 세인트앤드루스는 골퍼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이곳의 올드 코스(Old Course)는 최초의 골프 코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올드 코스는 처음으로 골프의 규칙을 제정하면서 골프가 본격적인 스포츠 경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골프 클럽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그들이 이 특별한 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다. 골프의 홈,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아주 의미 있는 블렌딩 작업을 통해 완성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에는 이 두 사람의 열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세인트앤드루스에서 가장 험난하면서도 인기 있는 홀이자 골프의 역사가 살아 있는
이곳에서 샌디 히슬롭과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제작하는 것은 무척이나 기대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경험이었고, 이번 협업을 통해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의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우승 트로피와 이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아주 소중한 곳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_**베른트 비스베르거**(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자)

새로운 블렌딩의 역사를 남기고 있는
특별한 위스키, 그 여섯 번째

발렌타인은 골프와 발렌타인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두 분야의 열정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매년 챔피언십 블렌드를 공개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그 전통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함께 창조해 냈다.
전 세계에 단 10병만 한정 생산되며, 41년 이상 숙성된 희소성 높은 원액들로만 블렌딩된 2013 챔피언십 블렌드는 그 가격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진귀하고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베른트 비스베르거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올해의 스페셜 블렌드는 풍부한 과일 향이 깊은 오크 향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부드러운 풍미를 선사한다. 보틀을 감싸고 있는 골드 라벨에는 특별한 합작을 통해 최상의 블렌드를 만들어 낸 샌디 히슬롭과 비스베르거의 서명과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어, 그 희소가치를 더한다.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첫 번째 보틀을 선사 받은 영광의 주인공은 연장전 끝에 극적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브렛 럼포드였다. 더불어 챔피언십 기간 중 경매 행사를 통해 챔피언십 블렌드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을 가리는 전통이 올해도 이어졌고, 그 수익금 전액은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해 기부됐다. 또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를 통해 단 한 명에게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다. 우승자에게는 물론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즐기는 골프 팬, 위스키 애호가들 모두에게 귀중한 가치를 전했던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이 훌륭한 위스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의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소중하게 자리할 것이다.

2013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

Collaborated with
the 2012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Bernd Wiesberger
[Aged 41 Years]

HISTORY OF BALLANTINE'S CHAMPIONSHIP BLENDS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히스토리(2008~2013)

2008

Produced by
Master Blender, Sandy Hyslop
[Aged 40 Years]

2008년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유러피언 투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통이 시작된 해다. 2008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40년산으로 단 8병만 생산되었으며,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노력과 전문성이 집약된 진귀한 결정체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2009

Collaborated with
the 2008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Graeme McDowell
[Aged 35 Years]

전년도 챔피언 그래엄 맥도웰과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2009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발렌타인 역사상 전문가 외의 외부인이 협업하여 만든 최초의 위스키다. 위스키 애호가인 그래엄 맥도웰은 샌디 히슬롭이 엄선한 위스키 원액에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여 부드러운 맛이 돋보이는 챔피언십 블렌드를 탄생시켰다.

2010

Produced by
Master Blender, Sandy Hyslop
[Aged 36 Years]

1960년 첫선을 보인 발렌타인 골프 토너먼트의 50년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2010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1960년도에 만들어진 원액만을 사용해 블렌딩한 것이 특징이다. 우승자인 마커스 프레이저에게 한 병이, 경매를 통해 또 다른 한 병이 주인공을 찾았으며, 경매 수익금은 당시 천안함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성금으로 기탁되었다.

2011

Collaborated with
the 2010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Marcus Fraser
[Aged 38 Years]

2010년 대회 우승자 마커스 프레이저와 샌디 히슬롭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2011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전 세계에서 10병만 한정 생산되었으며, 최소 38년 이상 숙성된 최소 가치가 높은 원액들로 블렌딩되었다. 마커스 프레이저는 본인이 직접 느낀 발렌타인의 매력을 바탕으로 진한 과일 향과 크리미한 풍미를 담은 위스키를 완성했다.

2012

Collaborated with
the 2011 Ballantine's Championship Winner, Lee Westwood
[Aged 41 Years]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41년 이상의 진귀한 원액이 사용된 최상의 블렌드로 역대 챔피언십 블렌드 중 가장 고연산이었다. 당시 샌디 히슬롭은 최고 품질의 곡물과 몰트 위스키를 선정하고 블렌딩하여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어 냈다. 보틀에는 지난해 챔피언 리 웨스트우드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2013

Dream of Becoming a Legend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 전설의 주인공을 만나다

(주)현대주류 노종만 회장

전 세계 단 10병만 한정 생산된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는 우승자 외에도 대회 기간 중 경매를 통해 또 한 명의 주인공을 가리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전통을 이었다. 이 특별한 블렌드의 주인공이자 주류 업계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주류 노종만 회장을 만나 발렌타인과 골프 그리고 전설(legend)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업계에서 전설(legend)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으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는지. 14년 전 주류 업계에 새롭게 발을 들였는데, 그러던 중 IMF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업계 사람들은 자금이 없었고, 주류를 수입하던 수입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가 머뭇거릴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던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평소 골프와 발렌타인을 즐기시는지. 골프와 발렌타인은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평소 사무실에서도 골프 채널에서 중계되는 경기를 챙겨 볼 정도로 골프를 무척 좋아합니다. 잘 치지는 못해도 지인들과 라운딩을 종종 즐기고 있고, 80대 초반 타수의 성적은 거두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다양한 주류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발렌타인은 그 특유의 맛, 향과 함께 저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를 선사하는 위스키 중의 하나입니다.

본인이 느끼는 골프의 전설(legend)은 누구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외국 선수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최경주 선수를 골프의 전설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그가 세운 큰 공과 노력이 한국 골프의 희망을 밝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세운 양용은 선수, 최근 PGA 투어에서 우승한 배상문 선수, LPGA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한국 여성 선수들이 그의 뒤를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요.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번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앞서 프로암 대회에 참가하여 배상문 선수와 함께 나눈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배상문 선수에게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많은 골프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해외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은 한국에서 새벽일 텐데 응원을 하실 수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유심히 봤던 그의 플레이를 자세하게 일러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회장님 같은 골프 팬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골프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 그가 참 고마웠습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끝나고 텍사스 주에서 열린 PGA 투어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그가 우승을 해 무척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참가했던 많은 선수들 중 우승하기를 바란 선수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보니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걸 바랐겠죠? 경기를 지켜보다 양용은 선수의 볼이 해저드에 들어갈 땐 마치 간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 소감은. 전년도 우승자와 마스터 블렌더의 협업으로 탄생된 특별한 위스키인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경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이 한국 골프 발전을 위해 기부된다고 들었는데, 골프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아주 행복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발렌타인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다양한 술을 소장하고 있지만, 발렌타인 위스키는 제게 아주 특별한 존재이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발렌타인 30년은 목넘김이 아주 부드러우며 고유한 향이 매우 매력적이라, 평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많은 감정들을 공유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지난 주에도 친구들과 함께 마셨는데 다들 칭찬 일색으로, 발렌타인 30년을 소개한 제게 감사의 인사까지 전해주더군요.

끝으로 '전설'이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발렌타인이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발렌타인'은 일적인 부분은 물론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이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 매개체였습니다. 또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계기가 되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경매에 참가하게 되고, 그로써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 것 또한 발렌타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해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갔던 것이 성공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Another Interview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또 다른 주인공, 정지연

올해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앞두고 진행된 소비자 프로모션을 통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수여 받을 행운의 주인공이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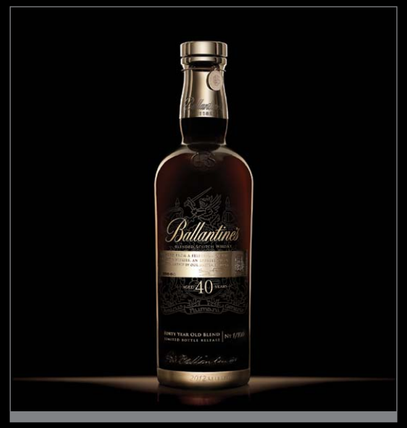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사실 당첨 안내 전화를 받고 믿겨지지 않았는데, 오늘 눈앞에서 확인하고 다들 축하해 주시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10병만 생산되었다고 하던데, 그중 하나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발렌타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참여하셔서 당첨되셨는데, 당시를 회상한다면. 발렌타인을 즐겨 마시는 남편 덕분에 좋은 선물을 얻은 것 같아요. 남편이 해외 근무로 국내에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데, 마침 한국을 찾았을 때 바에서 발렌타인 위스키를 마셨던 것이 오늘의 행운을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당첨 사실을 알려줬는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본인도 믿겨지지 않는지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시는지. 저는 술이 약한 편이라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모금 정도만 마시는 편이에요. 대신 남편이 발렌타인을 아주 즐기는 편입니다. 발렌타인 17년을 주로 마시는데, 특유의 부드러운 맛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참, 내년 시아버지 생신 때 특별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발렌타인 30년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여 받은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를 소장하실 건지 아니면 개봉하실 예정인지, 활용 계획이 있다면. 특별한 의미를 담은 위스키인 만큼 소장할 계획입니다. 아마 가슴이 떨려서 마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끝으로 한마디. 좋은 기회를 통해 소중한 위스키를 얻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위스키를 즐기는 여성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발렌타인 40년은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과 세계적인 세공 장인 리차드 폭스가
합작하여 탄생한 이 명작은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께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년은 수퍼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중 단연 최고 제품이다.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한다.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대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프레임에 가죽 느낌의 커버가 품격을 높인다.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발렌타인 21년은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반짝이는 황금색,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 등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급 위스키의 전형으로 칭송 받는 발렌타인 21년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DISCOVER THE LEGEND

스카치 위스키를 예술과 장인정신의 결정체로 승화시킨 조지 발렌타인. 그의 업적은 발렌타인만의 휘장을 통해 인정받았다. 고귀한 유산과
전통을 숭배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성의 결과물로서 칭송받는 그의 업적은 '모든 인류의 친구(Amicus Humani Generis)'라는
시공을 초월한 발렌타인만의 모토를 오늘날까지 실현 가능케 하며, 그 스토리는 모든 이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이어져온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

발렌타인 17년은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다.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Ballantine's 17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1st.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발렌타인 17년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의 첫 번째 버전. 글렌버기 증류소의 20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오렌지 맛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2nd. edition 발렌타인 17 스카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역에 위치한 스카파의 풍부한 풍미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이국적이고 미스터리어스하며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발렌타인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어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Ballantine's 17 Miltondyff Edition

3rd. edition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발렌타인 17년의 우아한 부드러움의 근간을 이루는 밀튼더프 몰트가 맛과 향에 크리미하고 따스한 느낌을 부여한다. 향긋한 꽃 내음,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 배즙의 풍부한 과일 향에 계피의 스파이시한 풍미가 밀튼더프 고유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THE ORIGINAL

세계 최초의 17년산 위스키, 발렌타인17. 이 진귀한 블렌디드 위스키는 1930년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에 의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수 년간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되어 특별한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과일 향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발렌타인만의 시그니쳐 스타일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진정한 오리지널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건재하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0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언제 어느 곳에서도 그 본질만은 변치 않는 것,
그중의 하나가 발렌타인 블렌드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이들과 공유했던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이 모두의 마음 속에
잊지 못할 명작으로 자리한 것만 보더라도.

Share the Ballantine's Entrepreneurial Spirit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전하다
CEO 그리고 발렌타인

월간 〈CEO&〉과 함께 뜻을 모은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CEO& 비자트 창립 포럼'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이 지난 5월 15일,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에서 진행됐다. 발렌타인은 이 특별한 행사의 후원을 맡아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하는 등 참석한 CEO들에게 발렌타인의 헤리티지와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에 담긴 귀중한 가치를 전했다.

17년산 이상 프리미엄급 위스키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발렌타인이 상징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한국에서 첫 출시된 발렌타인은 지금까지 9년 연속 'CEO가 가장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국내 CEO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또 '소비자 선호도 1위', '소비자 인지도 1위' 등의 기록이나 지금까지의 수상 내역에 비춰 보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발렌타인은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블렌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CEO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발렌타인 위스키가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각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시작 전부터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찾은 참석자들로 붐볐고, 이들은 미리 준비된 웰컴 칵테일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눴다. 본격적인 행사의 1부는 저녁 만찬, 2부는 강연 및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녁 만찬을 즐기는 시간 동안에는 발렌타인을 더욱 깊이 있게 테이스팅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멘토링 클래스에서는 200여 년 전 조지 발렌타인이 19세의 나이로 에든버러에 작은 상점을 열면서 시작된 발렌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에 대한 스토리도 펼쳐졌다.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장인정신, 혁신을 추구하는 선지자적인 면모를 모두 갖추었던 조지 발렌타인의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CEO들이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테이스팅 클래스에서는 실제 발렌타인의 완벽한 블렌딩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키(Key) 몰트 원액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다양한 원액들을 경험하면서 오감을 일깨우는 테이스팅을 통해 발렌타인이 선사하는 'Art of Blending'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 말미에는 럭키 드로우를 통해 발렌타인 17년, 발렌타인 21년이 제공되었으며, 축하를 위한 파티에 더해진 발렌타인 무드가 오래도록 은은한 여운을 남겼다.

Valuable Time with Ballantine's

챔피언십의 감동이 더해진 테이스팅 클래스
발렌타인 멘토링 프로그램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치러졌던 나흘 동안 블랙스톤 골프 클럽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대회를 찾은 갤러리 및 VIP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대회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발렌타인 위스키의 진면목 또한 발견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회로, 참가자들에게 감동적인 테이스팅의 시간을 선물했다.

스코틀랜드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발견하는 시간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동안 블랙스톤 골프 클럽 내의 18개 홀에서 불꽃 튀는 명승부가 펼쳐졌다면, 클럽하우스 2층에 위치한 멘토링 룸에서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발렌타인 위스키의 숨겨진 면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멘토링 클래스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멘토링 클래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렌타인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는 "여러분은 스코틀랜드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라고 운을 뗐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머뭇거리고 있을 즈음 "그것은 바로 골프와 위스키, 발렌타인입니다"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스코틀랜드로부터 시작된 두 가지의 위대한 유산인 골프와 발렌타인을 소개하며, 그에 더해 발렌타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함께 소개됐다.

'Timeless Classic'을 주제로, 오랜 세월을 흘러 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발렌타인과 골프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그 둘이 만나 탄생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스토리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 대회 우승자 베른트 비스베르거와 발렌타인의 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함께 만든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블렌드의 탄생 배경이 담긴 특별한 영상도 소개해 주었다.

챔피언십 기간 중에 만나는 발렌타인,
그 특별한 테이스팅의 자리

200여 년 전 조지 발렌타인에 의해 시작된 발렌타인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스코틀랜드 4개 지역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테이스팅의 시간이 찾아왔다. 미리 세팅된 테이스팅 키트를 열자 테이스팅을 위한 6가지 원액들과 테이스팅 글라스가 각각 담겨 있었다. 뉴스피릿, 글렌버기 몰트, 스카파 몰트, 그레인 위스키, 발렌타인 17년, 발렌타인 30년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는 원액들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보리로 만든 증류 원액인 뉴스피릿은 멘토링 클래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진귀한 원액으로 이 자리에 특별함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한 잔 한 잔 담겨진 각각의 원액마다 눈으로 보이는 빛깔, 코끝에서 느껴지는 향, 허끝에서 느껴지는 맛과 질감을 차례로 음미해 가며 테이스팅했다. 또한 함께 준비된 테이스팅 노트에 본인이 느낀 맛과 향을 기록하고, 각 원액들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이었다. 완벽한 블렌딩의 미학을 자랑하는 '발렌타인 17년'을 시음한 후에는 테이스팅 휠(tasting wheel)을 직접 그려 보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근사치의 값에 근접한 참가자에게는 발렌타인 17년, 발렌타인 미니어쳐 등의 상품이 주어졌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멘토링 클래스는 스코틀랜드식 인사 '슬란지바'를 다 함께 외치며 건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01

02

03

>>

01.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멘토링 클래스가 진행됐다
02. 클래스 종료 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가자들
03. 진지하게 발렌타인의 향을 음미하고 있는 참가자

다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은은한 향기와 여운

한편 발렌타인은 보다 격 있는 위스키 음용 문화를 확산하고 위스키를 좀 더 제대로 음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테이스팅 퍼스트(Tasting First)'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발렌타인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 가고 있다.

발렌타인 챔피언십 기간 중에 열린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매체 기자 및 독자, 일반 고객 등 대회를 찾은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발렌타인만의 '블렌딩의 미학'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열정이 묻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특별한 클래스여서인지 현장에서 전해지는 감동에 위스키 테이스팅으로 다가오는 긴 여운까지 더해지는, 참가한 이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Mini Interview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
새롭게 만나는 발렌타인

이지현 >> "평소 위스키보다는 와인을 즐기는 편인데, 위스키 클래스에 참여하여 발렌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테이스팅을 했을 때 더욱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발렌타인 17년이 가장 부드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경석 >> "브랜드 앰버서더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블렌드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테이스팅한 6개의 원액 중에서는 발렌타인 30년의 부드러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맛이 제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손용태(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 단장) >> "달콤함, 과일 향, 꽃향기… 테이스팅을 하면서 발렌타인 속에 숨겨진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의 오랜 역사에 담긴 소중함이 느껴지기도 했구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블렌딩의 발렌타인 17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발렌타인 17년까지 선물 받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챔피언십 대회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지현(좌), 김경석(우)

손용태

05

Ballantine's
Pick

암스테르담 보트쇼

2013.09.03 – 09.08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www.hiswaterwater.nl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2013

2013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2013.08.09 – 09.01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 www.eif.co.uk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라는 행정적 의미를 넘어 스코틀랜드만의 독자적인 역사와 개성이 곳곳에 깃든 정치, 문화, 관광의 중심지다. 이 도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인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유명 예술인들이 한데 모이는 글로벌 아트 페스티벌로 매년 8월에 개최된다. 에든버러의 무대는 유명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신예 예술인들에게 있어서도 세계로 나아가기 전 초연을 올리길 선망하는 꿈의 등용문과도 같다.
공식적인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외에도 필름, 북, 재즈 페스티벌과 백파이프 연주로 유명한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 등의 행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개최되고 있어,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들이 에든버러 시내를 가득 메운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도 함께 그 특색을 인정받고 있는데,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젊은 예술인들이 축제 주변부에서 개성 넘치는 공연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세계 최고의 행위 예술 페스티벌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수많은 세계 관광객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모여든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의 규모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08 August

금난새와 함께하는 로맨틱 와인 콘서트

2013.08.01 / 라움아트센터 체임버홀
www.theraum.co.kr

8월의 어느 밤, 클래식이 와인에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공연 후 야외 가든에서 즐기는 와이너리 투어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로맨틱한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와인 콘서트에서는 프랑스 인상파 음악부터 미국의 현대 음악까지 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금난새의 깊이 있고 재치 넘치는 해설이 더해져 클래식에 한껏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성급 헤드 셰프가 준비한 세미 뷔페와 클래식 와인을 즐기면서 와인 향으로 에워싸인 여름밤에 취해 보자.

임펄스탄츠 _비엔나 국제 무용제

2013.07.11–08.11 / 오스트리아 비엔나
www.impulstanz.com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_시크릿 뮤지엄

2013.06.12–09.22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www.secretmuseum.co.kr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2013.07.19–09.01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www.salzburgerfestspiele.at

모스크바 국제 모터쇼

2013.08.26–08.29 / 러시아 모스크바
www.mims.ru

09 September

암스테르담 보트쇼

2013.09.03–09.08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www.hiswatewater.nl

1933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암스테르담 보트쇼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각국의 유명 해양 레저업체들이 개발한 요트와 모터 보트들이 부두에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으며, 화려한 보트쇼를 통해 해양 레저 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옥토버페스트

2013.09.21–10.06 / 독일 뮌헨
www.oktoberfest.de

매년 독일의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로, 뮌헨의 내로라하는 맥주 양조장들이 테레지엔비제 광장 곳곳에 비어 가든을 설치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맥주 500만 리터 이상이 이 축제를 통해 소비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페스티벌이다.

베를린 가전멀티미디어 박람회(IFA)

2013.09.06–09.11 / 독일 베를린
b2c.ifa-berlin.de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2013.06.14–09.29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gauguin.kr

런던 보석 박람회(IJL)

2013.09.01–09.04 / 영국 런던
www.jewellerylondon.com

메르세 페스티벌

2013.09.20–09.24 / 스페인 바르셀로나
merce.bcn.cat

10 October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2013.09.06–11.03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www.gwangjubiennale.org

한국은 물론 세계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가 2005년 창설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홀수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국내외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일반 시민이나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젝트,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해는 '거시기, 머시기'를 부제로,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에 사용자의 취향과 특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멋'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국제 아트 페어

2013.10.03–10.07 / 코엑스 A,B홀
www.kiaf.org

뉴욕 사진 박람회

2013.10.24–10.26 / 미국 뉴욕
www.photoplusexpo.com

국립발레단 _롤랑 프티의 밤

2013.10.11–10.13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www.kballet.org

마이애미 보석 박람회

2013.10.03–10.06 / 미국 마이애미
www.jisshow.com

11 November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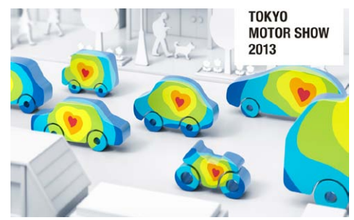
2013.11.02–11.03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www.sejongpac.or.kr

세계 최고 교향악단의 반열에 드는 오케스트라로, 올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들이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거쳐갔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르는 해외 순회 공연을 가지면서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LA 오토쇼

2013.11.22–12.01 / 미국 로스앤젤레스
www.laautoshow.com

전 세계 40여 개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참가하는 대표적인 오토쇼로, 작년 행사에는 약 50여 대의 뉴 모델이 이곳에서 데뷔 무대를 가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럭셔리한 분위기가 LA 오토쇼만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킨다.



도쿄모터쇼

2013.11.22–12.01 / 일본 도쿄
www.tokyo-motorshow.com

서울카페쇼

2013.11.21–11.24 / 코엑스
www.cafeshow.co.kr

뒤셀도르프 국제 광고 박람회

2013.11.07–11.09 / 독일 뒤셀도르프
www.viscom-messe.com

모스크바 국제 가구 박람회

2013.11.18–11.22 / 러시아 모스크바
www.meb-expo.ru/en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결전, 발렌타인이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EPGA / PGA 투어 일정을 소개합니다.

EPGA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유러피언 투어는 1984년 독립하여 주로 유럽에서 대회가 열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시아, 중동 등 비유럽권에서 개최되는 비중이 높아졌다. www.europeantour.com

PGA

미국과 북미를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PGA 투어는 매년 1월 초부터 경기를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르고 있다. www.pgatour.com

08 AUGUST

PGA 챔피언십 EPGA PGA

PGA Championship

2013.08.08 – 08.11 / Oak Hill CC / 미국 뉴욕 로체스터
$8,000,000

1916년에 처음 개최된 PGA 챔피언십은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1994년 이후 공식 골프 랭킹 100위권 내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 규모가 그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

레노 타호 오픈 PGA

Reno Tahoe Open

2013.08.01 – 08.04 / Montreux G&CC / 미국 네바다 리노
$3,000,000

월드 골프 챔피언십 –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EPGA PGA

World Golf Championships - Bridgestone Invitational

2013.08.01 – 08.04 / Firestone CC / 미국 오하이오 애크론
$8,750,000

윈덤 챔피언십 PGA

Wyndham Championship

2013.08.15 – 08.18 / Sedgefield CC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5,300,000

바클레이스 챔피언십 PGA

The Barclays

2013.08.22 – 08.25 / Liberty National GC /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
$8,000,000

09 SEPTEMBER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 EPGA

Omega European Masters

2013.09.05 – 09.08 / Crans-sur-Sierre GC / 스위스 크랑-몬타나
€2,200,000

1980년대 초까지 스위스 오픈으로 알려졌던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스는 유럽 최대의 골프 토너먼트 중 하나다. 스위스 크랑-몬타나의 고도 1500m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경기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골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MW 챔피언십 PGA

BMW Championship

2013.09.12 – 09.15 / Conway Farms GC / 미국 일리노이 레이크 포레스트
$8,000,000

KLM 오픈 EPGA

KLM Open

2013.09.12 – 09.15 / Kennemer G&CC / 네덜란드 잔트포르트
€1,800,000

코카콜라 투어 챔피언십 PGA

TOUR Championship by Coca-Cola

2013.09.19 – 09.22 / East Lake GC /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8,000,000

70° 오픈 데 이탈리아 EPGA

70° Open d'Italia

2013.09.19 – 09.22 / Golf Club Torino / 이탈리아 토리노
상금 미정

※ EPGA / PGA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입니다.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OCTOBER

프레지던츠컵 PGA

The Presidents Cup

2013.10.03 – 10.06 / Muirfield Village GC / 미국 오하이오 더블린
상금 미정

프레지던츠 컵은 유럽의 라이더 컵(Ryder Cup)을 본떠 비유럽권 골퍼들을 위해 1994년 처음으로 개최된 팀 대항전이다. 대회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이 대회는 개최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예 의장을 맡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프라이스닷컴 오픈 PGA

Frys.com Open

2013.10.10 – 10.13 / CordeValle GC / 미국 캘리포니아 산 마르틴
$5,000,000

포르투갈 마스터스 EPGA

Portugal Masters

2013.10.10 – 10.13 / Oceânico Victoria GC / 포르투갈 빌라모우라
€2,000,000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PGA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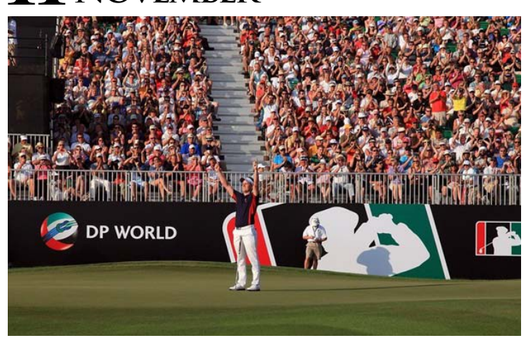
2013.10.14 – 10.20 / TPC Summerlin / 미국 네바다 라스베가스
$4,500,000

퍼스 인터내셔널 EPGA

Perth International

2013.10.17 – 10.20 / Lake Karrinyup CC / 호주 퍼스
$2,000,000

11 NOVEMBER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두바이 EPGA

DP World Tour Championship, DUBAI

2013.11.14 – 11.17 / Jumeirah Golf Estates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8,000,000

2009년 두바이에서 시작된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두바이 월드 챔피언십)은 Jumeirah Golf Estates Course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시즌을 대표할 만한 경기로 성장하면서 유러피언 투어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맥글래드리 클래식 PGA

The McGladrey Classic

2013.11.07 – 11.10 / Sea Island Resort / 미국 조지아 세인트 사이먼 아일랜드
$4,200,000

터키항공 오픈 EPGA

Turkish Airlines Open

2013.11.07 – 11.10 / The Montgomerie Maxx Royal / 터키 안탈리아
$7,000,000

OHL 클래식(마야코바 클래식) PGA

OHL Classic at Mayakoba

2013.11.14 – 11.17 / El Camaleon GC at the Mayakoba Resort /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
$6,000,000

골프 월드컵 PGA

World Cup of Golf

2013.11.18 – 11.24 / The Royal Melbourne GC / 호주 빅토리아 멜버른
$8,000,000

Ballantine's Special Concept Space 1

대자연의 숲 속에서 교감하는 발렌타인
아난티 클럽 서울

지난 겨울, 눈 덮힌 필드 위에서 '발렌타인 스노골프' 경기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던 아난티 클럽 서울. '겨울에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독특하고 신선한 발상에서 시작된 아난티 클럽 서울의 차별화된 행보는 1년 내내 선보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발렌타인 17 핫초코 & 핫토디'가 이곳에서 첫선을 보이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 것처럼, 새롭게 출시된 '발렌타인 17 코스' 역시 깊이 있는 감동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최상의 위스키 그리고 최고의 만찬
발렌타인 17 코스

한식, 양식은 물론 아시아 요리까지, 다양하고 신선한 메뉴를 선보이는 아난티 클럽 서울의 더 레스토랑(The Restaurant)에서 오픈 3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패키지를 출시했다. 메인 요리와 디저트에 발렌타인 17년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발렌타인 17 코스'는 애피타이저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6종으로 구성된 코스 메뉴로, 발렌타인 17년 특유의 풍미가 은은하게 녹아들어 있으면서도 각 메뉴들의 개성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화과의 향이 잔잔하게 퍼지는 아라굴라 샐러드와 새우를 곁들인 감자 수프, 오렌지 로즈마리 버터 소스의 송어 구이에 이어 메인 코스가 서브된다. 메인 요리인 소등심 구이에는 발렌타인 위스키 소스가 더해져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운 발렌타인 17년만의 매력이 그 속에 잘 스며들어 있다. 디저트로 나오는 두유 치즈 케이크에는 발렌타인의 향이 가미된 메이플 시럽이 곁들여져 달콤한 여운을 혀끝에 남긴다.

'발렌타인 17 코스'를 처음 선보인 크리스토퍼 무열 최 아난티 클럽 서울 수석 셰프는 "평소에도 자주 즐길 만큼 발렌타인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위스키 중의 하나"라며, "발렌타인은 단독으로 즐길 때도 분명 매력적인 위스키지만, 특히 요리에 함께 사용했을 때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위스키 본연의 향이 배어나게 하는 매력적인 위스키"라고 언급했다. 또 최 셰프는 "위스키를 음미하실 줄 아는 분, 발렌타인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이 코스를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며 발렌타인 17 코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발렌타인 17 코스는 발렌타인 17년과 함께 즐길 경우 그 매력이 배가되는 것은 물론 가격적인 할인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특별한 다이닝 코스를 통해 발렌타인의 숨겨진 맛과 향을 발견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발렌타인이 전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또 다른 일환으로 쓰여지는 테이스팅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01. 새우를 곁들인 감자 수프
02. 발렌타인 향의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두유 치즈 케이크
03. 오렌지 로즈마리 버터 소스의 송어 구이
04. 발렌타인 위스키 소스와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소등심 구이
05. 팔마 햄과 무화과, 호두를 곁들인 아라굴라 샐러드

Special interview

아난티 클럽 서울 수석 셰프
크리스토퍼 무열 최

'발렌타인 17 코스'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발렌타인 위스키를 코스 요리 전체에 사용하지는 않고, 메인 요리와 디저트에만 접목했습니다. 애피타이저에서부터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가미하는 것보다, 메인 요리가 서브되기 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메인 요리를 먹고 난 후, 아쉬움이 들 때 한 번 더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디저트를 통해 발렌타인의 달콤한 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메인 코스가 서브되면 손님들께 발렌타인 위스키 소스가 곁들여진 요리라는 설명을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 손님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기도 하고, 발렌타인 17년을 주문하여 코스 요리와 함께 즐기시면서 더 깊은 향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발렌타인을 요리에 접목시키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발렌타인을 처음으로 접했던 것은 대략 20년 전 요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보통 요리에 술을 많이 접목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술의 특징을 파악해야 요리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계기로 접하게 된 발렌타인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음식에도 활용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렌타인은 부드러우면서 깊은 풍미와 더불어 요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음식 자체의 맛을 살리면서 발렌타인의 향 또한 조화롭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다른 술은 맛과 향이 강하다든지, 맛의 깊이가 얕다든지 해서 음식과 위스키 모두의 매력을 반감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렌타인은 최고의 베이스로 손꼽힙니다.

평소 즐기는 발렌타인은.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은 발렌타인 30년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발렌타인 30년을 마시면 초콜릿 향이 느껴지더라구요.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다가오는 초콜릿 향이 좋아서 발렌타인 30년을 가장 선호하며, 요리를 할 때는 발렌타인 17년, 12년을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전에도 발렌타인을 활용한 요리들을 선보인 적이 있는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저만의 음식을 만든 것이 이제 13년 정도 되었는데, 초반부터 발렌타인 위스키를 요리에 많이 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프랑스 요리에서 고기를 절이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발렌타인 위스키를 자주 사용했었고, 소스류에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발렌타인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한다면 염두에 둔 메뉴가 있는지.
발렌타인이 첨가된 초콜릿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술을 사용한 초콜릿은 시중에 많지만, 발렌타인 위스키를 활용한 저만의 레시피로 차별화된 초콜릿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초콜릿과 위스키는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디저트가 아닌 애피타이저나 메인 요리에도 응용해 보고자 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
아난티 클럽 서울

아난티 클럽 서울은 사계절 내내 새로운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서울 도심에서 30분만 벗어나면 푸르른 숲이 우거진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잣나무와 백자작나무, 느티나무 군락들이 60만 평의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는 물론이고 야외 수영장과 테니스장, 고품격 레스토랑 등의 공간 하나하나에 고객들을 위한 세심한 노력과 흔적이 배어 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처럼 상대적으로 골프를 즐기기에 취약한 계절에도 아난티 클럽 서울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난티 클럽 서울은 지난 겨울, 국내 최초로 '발렌타인 스노골프'를 개최하며 많은 국내 골프 팬들에게 독특하고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 바 있다. 올해 여름에는 아웃도어 트렌드인 캠핑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합한 '캠핑 인 더 포레스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아난티 클럽 야외 수영장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캠핑존에서 경험하는 바비큐 파티와 산림욕은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값진 휴식 시간을 선물한다.
푸르른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 프라이빗한 클럽에서 누리는 골프 타임, 미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퀴진 메뉴, 풀사이드에서 즐기는 파티, 잣나무 숲에서 들이마시는 상쾌한 피톤치드… 이 모든 것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아난티 클럽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컨트리 클럽을 지향하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정화시켜 주고 있다.

아난티 클럽 서울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
전화번호 031-589-3000 www.ananticlub.com

Ballantine's Special Concept Space 2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다 아일랜드 리조트

서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며 오밀조밀한 섬들이 눈을 즐겁게 하는 골프 코스,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발렌타인 위스키 한 잔의 여유, 평화로운 오후에 만끽하는 편안한 휴식. 이 모두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름다운 서해의 자연과 발렌타인의 무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선사한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라운딩
씨 서라운드(Sea Surround) 골프 코스

아일랜드 리조트의 골프 코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씨 서라운드(Sea Surround) 코스로,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코스 내내 즐길 수 있다. 27홀의 골프 코스 거의 모두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한국의 페블비치'로도 일컬어지며, 세계적인 골프 코스 디자이너인 데이비드 데일의 작품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된 코스가 그 위용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총면적 50만 평에 달하는 골프 코스의 설계를 진두지휘한 그는 "자연에 골프장을 얹히는 것이 가장 큰 플랜이었다"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대부도만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인 골프 코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아일랜드 리조트 설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일랜드 리조트의 골프 코스 중 시그니처 홀인 남 코스 5, 6, 7번홀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코스로 손꼽힌다. '다이아코브(Dia Cove)'라 불리는 이 홀은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유래한 '무적(無敵)'이라는 뜻을 지닌 다이아몬드와 해안에서 가까운 대지를 뜻하는 '코브'의 합성어로, '가장 어려운 이 세 홀을 아름답게 세공하듯 플레이한다면 황홀한 광채를 뿜어 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공간,
시간을 잊게 하는 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가장 큰 신념으로 삼고 있는 아일랜드 리조트는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골프 코스는 물론 품격 높은 클럽 하우스와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 또한 장점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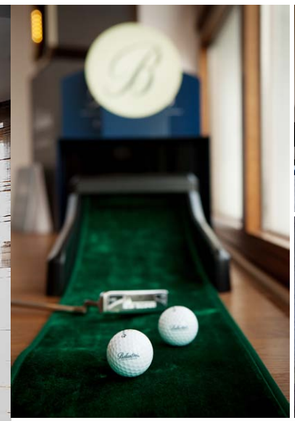
오직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또한 자리하고 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외관이 돋보이는 '빛과 물의 교회(방주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나무, 흙 등 자연의 소재를 이용하는 건축가로 유명한 고(故) 이타미 준이 설계를 담당했으며, 이 건축물은 그의 생애 마지막 유작이기도 하다. 방주교회는 '채플 웨딩' 등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서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빌리지 동 역시 이타미 준의 설계로 조성되었으며, 각 세대 모두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듯 가치 있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선사하는 아일랜드 리조트가 주는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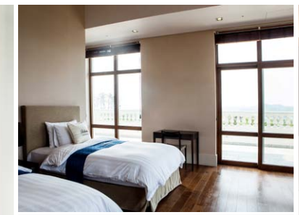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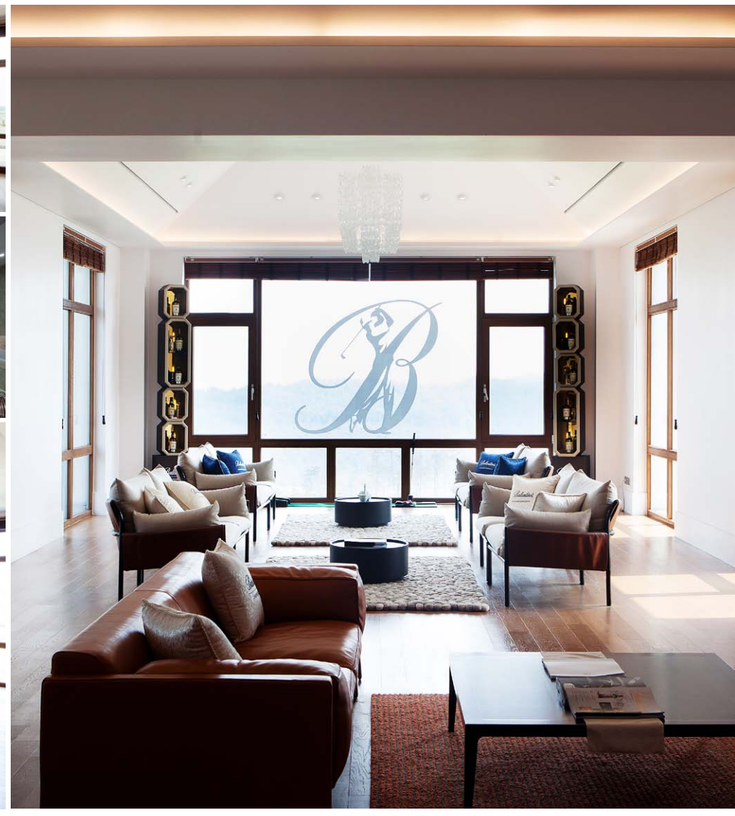
02

>>

01. 물 위에 떠 있는 듯 신비한 외관의 방주교회
02.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빌리지 동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며 음미하는 발렌타인
발렌타인 바

창 너머로 보이는 녹색의 필드와 푸른 서해 바다의 경치를 관망하며 발렌타인 위스키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일랜드 리조트 레스토랑 내에 마련됐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 속에 발렌타인 무드가 적절하게 녹아 있어 발렌타인 위스키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은은한 조명이 더해진 쇼케이스에는 발렌타인이 연산별로 나란히 전시되어 있으며, 함께 배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 발렌타인의 헤리티지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한편 아일랜드 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발렌타인 17과 3가지의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테이스팅하면서 그와 어울리는 푸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 셰프의 손길을 거친 '가지 안심 볶음', '단호박 숙주 오리 볶음' 메뉴가 발렌타인 17 시리즈의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풍미와도 조화롭게 어울린다. 시원하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 '발렌타인 17 후레쉬', 따뜻하고 달콤한 풍미의 '발렌타인 17 핫초코'도 준비되어, 발렌타인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즐기는 최상의 휴식
발렌타인 컨셉룸

아일랜드 리조트의 클럽하우스 내 VIP 스위트룸에 마련된 '발렌타인 컨셉룸'은 내부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특별하다.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안내하는 자동문이 열리고 이어지는 긴 복도를 걸어가면, 비로소 VIP 스위트룸의 입구가 보이는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를 메인 컬러로 베이지, 브라운 컬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90여 평의 실내 공간은 깔끔하면서도 특색 있는 매력을 발산한다.

발렌타인 컨셉룸에서는 메인 창을 통해 서해 바다와 녹색 그린의 전망이 가능하며, 실제 필드 위에서 경기 중인 모습도 창 너머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렌타인과 골프의 상징적인 만남을 대변하는 '𝓑' 로고가 넓은 창에 은은하게 표현되며, 양쪽 벽면으로는 발렌타인 보틀이 진열된 쇼케이스가 자리하고 있다. 아늑하게 꾸며진 실내 공간은 필드를 바라보며 발렌타인 위스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손색이 없다.

컨셉룸 안의 다양한 공간을 살펴보면 작은 액세서리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쓴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발렌타인 로고가 수놓아진 쿠션 등을 비롯하여, 발렌타인만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무드를 담고 있는 소품들, 창밖을 바라보며 퍼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등에서 세심한 정성이 엿보인다. 또한 거실과 부엌의 천장에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박선기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그 빛이 이곳을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에 마련된 발렌타인 컨셉룸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발렌타인과 골프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매력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 코리아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111번지

전화번호 032-885-1004 www.islandresort.co.kr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EMBERSHIP CLUB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이드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품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입 안내

발렌타인이 발급한 인증번호를 아래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 _www.ballantinesmc.co.kr
문의 _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혜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골프에서 응용한 독특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입니다.
회원 분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샷(Shot)이 주어지며,
샷 적립에 의한 등급에 따라 발렌타인만의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클럽 내의 유용한 소모임을 통해 인맥의 폭을 더욱 넓히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발렌타인 챔피언십 참가 특전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각 혜택 이용 시 일정 샷(shot)이 차감됩니다.

A. 갤러리 교환권 2매(평일 또는 주말)
: 모든 회원 대상

B. 발렌타인 챔피언십 시즌권(대회 기간 동안 제한 없이 갤러리 입장 가능)
: 보기 플레이어(Bogie Player) 회원 중 샷(Shot)으로 교환 가능 / 100샷 차감

C. 발렌타인 챔피언십 VIP 패스(기간 중 VIP 마퀴텐트 등 클럽하우스 이용 가능)
: 프로 플레이어(Pro Player) 회원 중 일부 선발 / 300샷 차감
※ VIP 마퀴텐트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관계자 및 발렌타인 주요 고객 분들을 위한 제한적 공간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의 인터뷰 및 사인회 등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D. 발렌타인 챔피언십 오프닝 & 갈라 디너
: 싱글 플레이어(Single Player) 회원 중 일부 선발 / 500샷 차감
※ 발렌타인 챔피언십 오프닝 & 갈라 디너는 나흘간 펼쳐질 세기의 라운딩의 오픈을 알리는 전야제로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소개 등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E. 발렌타인 챔피언십 관련 선물 및 기념품 제공
: 싱글 플레이어(Single Player) 회원 이상 선발 / 기념품에 따라 추후 샷 공지 예정
※ 지난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우승자들은 물론 스타 플레이어들의 사인이 담긴 발렌타인 17년 / 21년 및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02

발렌타인 제휴 바 혜택

발렌타인과 제휴된 바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바들과의 제휴를 통해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께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제휴 바 할인, 무료 안주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또한 바 이용 후기를 올리실 경우 20샷이 제공됩니다.

03

발렌타인 제휴 바 예약 서비스 제공

발렌타인 제휴 바를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약(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휴 바 페이지의 '예약하기'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추후 이용 후기를 올려 주실 경우 다양한 추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별도 샷 차감은 없습니다.

04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및 다양한 행사 초대

A.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초대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는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 브랜드 스토리부터 위스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테이스팅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클래스에 참가하신 분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발렌타인 관련 행사 주최
발렌타인은 신제품 출시 행사 및 다양한 럭셔리 파티를 준비 중이며, 신제품 런칭 시에는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분들에게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기 플레이어 이상 등급 회원은 행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이벤트에는 본인을 포함한 동반 1인이 초대되고 100샷이 차감됩니다.

05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내 다양한 이벤트 참여 및 스폰서 활동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월별/분기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프리미엄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스폰서 요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파티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회원 등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샷 차감은 없습니다.

06

회원 가입 시 멤버십 클럽 카드 발급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시는 회원 분들께 제휴 바 등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 번호가 담긴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6th.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어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컨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발렌타인

발행일
August 10, 2013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championship.com
www.ballantinesmc.co.kr

Planning & Design
㈜헤즈
www.heaz.co.kr

Edit
㈜헤즈

Photographer
송상섭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ELEMENTAL CHLORINE FREE GUARANTEED

본 매거진은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여
무염소 표백펄프(ECF)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